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97호 [루계 제25706호] 주체106(2017)년 7월 16일 (일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백두산천출위인들께

뻬루에서 상장들을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조국해방전쟁승리 64돐에 즈음하여 뻬루 깔라오일보사에서 상장들을 드리였다.

백두산천출위인들께 드리는 상장들을 전달하는 행사가 11일에 진행되였다.

깔라오일보사 사장 겸 책임주필은 조선인민의 전승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상장들을 드리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은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 참신하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을 방문하여 제국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첨단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발전하는 나라,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되여 누구나 국가와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무료교육, 무상치료의 혜택속에 근심걱정을 모르며 사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보았다.

이처럼 강대한 나라를 일떠세우고 빛내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상장들을 수여해드리는것은 우리모두에게 있어서 최대의 영광으로 된다.

백두산천출위인들께 드리는 상장들을 사장 겸 책임주필이 뻬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상장들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와 위대한 장군님 그리고 선대수령들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하시여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상장을 수여해드릴것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글이 씌여져있다.

본사기자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뉴질랜드준비위원회 결성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뉴질랜드준비위원회가 6월 24일에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위원장 팀 빌이 선출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주석은 희세의 정치가

여러 나라 인사들 강조

조국과 혁명,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뜨거워지고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3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인사들이 보내여온 수많은 전문들과 편지들에 그대로 어려있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걸출한 국가정치활동가이시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온 세계에 사회주의제도의 불패성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거대한 업적을 쌓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민족의 위대한 수령, 어버이로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마쟈르로동당 위원장은 김일성동지는 조선인민뿐아니라 국제공산주의 및 로동운동의 탁월한 수령이시라고 하면서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 군대를 창건하시고 사회주의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다고 격찬하였다.

이란이슬람교련합당 부총비서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 나라의 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한생을 다 바치신 희세의 정치가이시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린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영원불멸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을 사회주의사상과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나가는 자주적인 나라로 일떠세우시였다고 하면서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한없이 넓은 도량과 숭고한 국제적의리를 지니신 그이께서는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과 반제투쟁, 새 사회건설을 적극 도와주시였다고 강조하였다.

도이췰란드 조선문화연구소조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정력적으로 사업하신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심장속에 태양으로 영생하고계신다.

그이께서 개척하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였으며 오늘은 김정은동지께서 이어가고계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할것이다.

로씨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그루빠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족의 어버이, 세계인민들의 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세계적영웅, 20세기의 위인이시다.

그이께서는 청년시절에 손에 총을 잡으시고 제국주의자들과의 가렬한 전쟁에서 탁월한 령도자, 애국자로서의 풍격과 자질을 발휘하시였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늘 마음써오신 김일성동지는 오늘도 조선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영생하고계신다.

2017년 백두산위인칭송대회 이슬란드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진보적인류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에 대한 그리움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 피압박민족들의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눈부신 성과들과 더불어 길이 빛나고있다.

이란 알하디 이슬람교선전기구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은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거대한 공적을 쌓아올리신 가장 현명한 수령이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인민들의 심장속에 영생하고계신다.

조선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김일성주석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적대세력들의 압력과 제재를 짓부시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들을 이룩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자!

철정광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나라의 대규모철광석생산기지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에 떨쳐나 상반년 철정광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조직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앞에 제시된 당정책, 기본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기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철정광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당책임일군을 비롯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일군들은 로천분광산을 비롯한 중요현장들에 내려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지피고있으며 기술개건과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선전선동부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폭발시키기 위한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다. 일군들은 방송선전차와 기동예술선동대활동을 강화하고있다. 특히 선전선동부 일군들로 경제선동대를 뭇고 화선식경제선동을 활발히 벌려 당앞에 다진 맹세를 열백밤을 패서라도 기어이 해내는 불굴의 창조정신이 전투장마다에 나래치게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참모부에서는 당위원회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발맞추어 철정광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패기있게 해나가고있다.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은 증산의 열쇠를 쇠돌운반에서 찾고 대형화물자동차들의 가동대수와 적재량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일군들은 통합생산지휘체계를 구축하며 설비, 부속품들의 국산화와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계획적으로 힘있게 내밀고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공구전시회와 경험토론회 등을 의의있게 조직하고있다. 그리하여 기업소안에 학습열, 과학탐구열이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 사회주의경쟁열풍이 힘차게 휘몰아치게 하고있다.

련합기업소아래 각급 당조직들의 힘있는 정치사업에 의하여 모든 단위들에서 만리마속도창조의 불길높이 맡겨진 생산계획을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모든 단위들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철산봉이 부글부글 끓어번지고있다.

로천분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회전식착정기들을 만가동시키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발파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그리하여 계획보다 많은 광의 철광석을 생산하고있다.

철광석수송량이자 철정광증산이라는것을 잘 알고있는 운광사업소와 차수리분공장의 일군들과 운전사들, 로동자들은 자동차들의 대보수, 중보수기일을 훨씬 단축하면서 대형화물자동차들의 가동대수를 지난 시기에 비해 부쩍 높이고있다. 그리하여 맡겨진 쇠돌운반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으며 7운광직장 702호대형화물자동차 운전사들을 비롯한 많은 혁신자들이 년간계획을 완수하는 위훈을 세웠다.

2지하파쇄장과 박토콘베아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형원추형파쇄기운영에 철정광생산실적이 좌우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전동기를 비롯한 설비들을 눈동자와 같이 애호관리하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대형원추형파쇄기를 만가동시키고있다. 건식직장에서는 파쇄기들의 가동률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높여 선광장에 질좋은 조광들을 원만히 보장해주고있다.

2선광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선광계통들의 보수를 빠른 시일안에 진행하면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선광실수률을 보다 높이고 철정광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다.

정미리분공장, 공무분공장, 뽈분공장을 비롯한 보장단위들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 년간 철정광생산계획을 두달이상 앞당겨 수행할 높은 목표를 세운 철산봉의 로동계급은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집단적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격동적인 오늘의 하루하루를 자랑찬 위훈으로 수놓아가고있다.

글 특파기자 리은남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백수십개의 대상건설 완공

922건설돌격대에서

922건설돌격대에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완공을 위한 총공격전을 드세차게 벌려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우리 조국의 력사에 특기할 올해를 대규모축산기지건설성과로 더욱 빛내일 불타는 열의밑에 축산기지건설자들은 강용한 기상을 떨치면서 지난 몇달동안에 120여개의 대상건설을 완공하였다. 이와 함께 160여개소에서 집짐승우리안의놀이장콩크리트포장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인민군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기세를 더욱 고조시켜 계획한 투쟁목표를 빨리 끝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앙현장지휘부의 일군들은 당의 뜻대로 세포지구 축산기지운영을 정상화하는데서 마감대상건설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명심하고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최단기간에 다그쳐 끝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이들은 현지에 나가 지대적특성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모든 대상들을 용도와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쓸모가 있으면서도 자연풍치와 잘 어울리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도록 건설하기 위한 작전을 면밀히 하였다.

시공단위들에서 과학기술보급거점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앞세워 내밀었다.

축산작업반들에 농업과학기술선전실을 건설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축산기지운영을 정상화하는데서 축산물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것을 명심한 건설자들은 자강력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극복하며 약 30동의 농업과학기술선전실건설을 완공하였다. 농업과학기술보급실건설도 동시에 진행되였다.

축산물생산을 늘이는데서 관건적고리인 우량품종의 풀먹는집짐승을 빨리 퍼치는데 유리한 지역들에 위치를 정하고 이 대상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다.

집짐승의 전염병을 예방하며 수의방역체계를 더욱 완비하기 위한 대상건설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시공단위들에서는 세포, 평강, 이천군들에 들어오는 입구라고 할수 있는 지역에 검역우리들을 건설하는것과 함께 곳곳에 격리우리를 비롯하여 집짐승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건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전투를 통이 크게 벌리였다. 일군들은 여러 대상건설을 다같이 밀고나가야 하는 조건에서 로력조직을 짜고들고 합리적인 공법들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능동적으로 패기있게 하였다.

건설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결사전 앞으로!》라는 구호를 힘있게 추켜든 국방과학전사들처럼 투쟁할 때 불가능이란 없다는 신념을 안고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내달렸다. 그리하여 70여동의 부검 및 폐축처리장건설을 완공하였다. 수의방역사업은 축산업에서 생명과 같다고 한 당의 뜻을 받들고 이들은 지난 기간 수의방역소와 수의방역초소들을 건설한 조건에서 수십동의 수의실을 더 갖추어놓기 위한 전투에 박차를 가하였다.

다른 대상건설장들에서도 혁신의 불길이 타올랐다.

자력자강을 동력으로 하여 굴함없는 공격전을 벌린 건설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해 세포군에 게사니종금장이 일떠섰다. 결과 세포지구의 각 지역에 소와 양, 염소를 비롯하여 풀먹는집짐승의 축종별종축기지들을 꾸려놓기 위한 사업에서 또 하나의 자랑찬 결실이 마련되였다.

올해 목표한 이동통신기지들을 꾸리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평강군 하주리를 비롯한 여러곳에 이미 소층살림집들을 번듯하게 일떠세워 도시와 같은 황홀경이 펼쳐진 과학자, 로동자주택지구들을 형성한 건설자들은 지금 세포군 읍지구에도 이런 멋쟁이대상들을 건설하기 위한 전투를 다그치고있다. 이와 함께 경영관리용건물건설도 적극 내밀고있다.

성, 중앙기관들 그리고 각 도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있는 지원속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완공하기 위한 총공격전의 성과가 날을 따라 확대되고있다.

현지보도반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절연급수가 높은 새 제품개발에 성공

안주절연물공장에서

안주절연물공장에서 나라의 전기기계공업발전에 이바지될 국산화의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의 불길속에서 새 제품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해온 이곳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얼마전 우리 식의 새로운 절연물을 개발한데 이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 절연급수가 높은 새 제품이 개발된 결과 지하전동차의 견인전동기와 지열뽐프생산에서 국산화비중을 높이올리고 기계공업부문에서 극소형전동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성능높은 각종 전동기들을 제작할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담보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절연물혁명을 힘있게 벌려 절연물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전동기를 비롯한 전기기계제품의 질을 높일수 없습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장창립일을 맞는 8월말까지 년간생산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한 치렬한 증산돌격전을 벌리면서 우리 식의 새로운 절연물개발전투를 립체적으로 전개하였다.

공장의 책임일군들은 새 제품개발의 총적방향을 우리 나라에 흔한 자재로 만들어내는것으로 정하고 절연물개발에 떨쳐나서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시약과 측정설비 등 제기되는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가는 속에서도 로력영웅이며 지배인인 리금철동무는 절연물개발의 기초원료를 우리 나라에 흔한 자재로 대신할수 있는 착상을 내놓아 기술자, 기능공들의 창조적열의를 북돋아주었다.

공장의 기술집단이 지칠줄 모르는 사색과 탐구로 미지의 과학세계를 하나하나 점령해나갔다. 박철민, 박광혁, 리금희동무들은 문환동무를 비롯한 3대혁명소조원들과 합심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성능이 높은 절연물을 개발하기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화학반응식들과 첨가제들을 새롭게 확정해야 하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이들은 열백번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기어이 우리 식의 새로운 절연물을 개발할 사상적각오를 안고 수백차례의 실험과 분석을 진행하며 첨단의 초행길을 하나하나 개척해나갔다.

공장일군들은 성능이 높은 새로운 절연물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성과가 확대되는데 맞게 그 공업적생산을 위한 준비사업도 예견성있게 내밀었다. 현행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찾는 한편 로동자들의 기능수준을 높이는 사업도 따라세웠다. 개발자들이 현장에서 해당 공정을 맡게 될 로동자들에게 새로운 절연물생산방법을 파악시키기 위한 과학기술학습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였다.

우리 식의 절연물을 개발한데 이어 그 공업적생산방법도 짧은 기간에 완성한 공장에서는 얼마전 첫 제품들을 평양326전선공장과 김종태전기기관차련합기업소, 여러 과학연구기지들에 보내주었다.

지금 새로 개발된 절연물에 대한 호평이 높아가고있다. 여러 단위의 기술자들은 내열, 내압, 습기견딤성 등의 기술적지표들이 수입산에 못지 않다며 각종 특수전동기들과 극소형전동기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수 있는 또 하나의 돌파구가 열리였다고 기뻐하고있다.

본사기자 전성삼

화물수송량 1.2배이상 장성

함흥철도국에서

함흥철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국방과학전사들처럼 위훈의 창조자가 될 결의에 넘쳐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지난 6월 19일까지 상반년 화물수송계획을 100.2%로 빛나게 결속한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그 기세로 7월 10일현재 전달에 비하여 수송량을 1.2배이상 장성시키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궐기하여 세기를 주름잡으며 최후승리를 향해 내달리는 조선의 기상과 본때를 힘있게 과시하여야 합니다.》

철도국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존엄높은 로케트강국의 공민된 긍지안고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총진군길에서 증송의 기적소리를 더 높이 울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전투적으로 벌리고있다.

국의 당, 행정책임일군들은 분국들과 역, 대, 소들에 내려가 화선식정치사업으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참모부서들에서는 중요물동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수송조직을 기동성있게 하면서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드세게 내밀고있다. 특히 단천-허천구간에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면서 철길보수도 빠른 속도로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국수송지휘처 사령원들은 각 기술역들과 상하차역들의 정확보상태와 화물렬차들의 운행상태를 빈틈없이 장악하고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최대한 줄여 중요물동을 실은 렬차들이 대고조전투장들을 향해 전속으로 달리도록 하고있다.

단천, 고원, 원산철도분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여 기관차실동기대수를 높이고 화차들의 회귀일수를 줄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상반년기간에 많은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여 단천지구광업총국아래 여러 단위들과 2.8비날론련합기업소,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과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대고조전투장들에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한 단천청년기관차대와 고원, 원산기관차대의 수송전사들이 기관차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앞세우고 합리적인 운전조작법을 받아들이며 증송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단천청년기관차대 《붉은기》5358호 기관사 현영남, 고원기관차대 《붉은기》5103호 기관사 김수국, 원산기관차대 《붉은기》5249호 기관사 최창남동무를 비롯한 10여명의 년간 화물수송계획완수자들이 만리마선구자대회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기세로 계속 혁신의 앞장에서 증송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함흥객화차대와 단천객화차대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이미 마련해놓은 수리기지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화차수리에 필요한 각종 부속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짐을 실어나르는데 크게 기여하고있다.

룡남역, 고원역, 단천청년역, 대흥역, 오봉리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도 해당 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제기되는 물동을 제때에 실어보내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지금 함흥철도국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오늘의 만리마대고조진군에서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며 나라의 동맥인 철도를 지켜선 책임과 임무를 다해갈 드높은 열의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두줄기 궤도우에 증송의 기적소리를 힘차게 울려가고있다.

본사기자 정경철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을 찾아서(10)

2천만을 조국해방성전에로 불러일으킨 민족대단결의 기치

조선혁명박물관에 대한 참관을 이어갈수록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민족자주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백전백승의 고귀한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세출의 위인상에 대한 격정으로 우리의 심장은 세차게 높뛰였다.

참관자들과 걸음을 함께 하며 우리가 들어선 곳은 10호실이였다.

백두산밀영의 사령부귀틀집(모형)을 지나 넓은 방으로 들어서니 백두산기슭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조국광복회운동이 온 나라 방방곡곡에 료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던 그 나날이 숭엄한 격정속에 되새겨졌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본듯 강사는 이렇게 해설을 시작하였다.

《이 호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적범위에서 당창건준비사업을 추진하며 조국광복회운동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이끄신데 대하여 해설해드리겠습니다.》

강의는 1930년대 후반기 당조직지도체계도앞에서부터 시작되였다.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모든 당조직들과 혁명가들에 대한 조직적련계를 보장하여 당창건준비사업은 물론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통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시려는것이 그때 우리 수령님의 의도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잊을수 없는 력사의 나날을 추억하시며 하신 교시의 글발이 우리의 눈앞에 확 안겨들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국적판도와 전민족적범위에서 당조직건설사업이 힘있게 추진되는 과정을 통하여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공산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결속되고 전반적조선혁명에 대한 당적령도가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강사의 이야기는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로부터 지방당조직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당조직지도체계가 세워지고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조선혁명이 힘있게 추진되던 1930년대 후반기의 기슭에 우리를 세워주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정치공작원들을 장백과 국내의 여러 지역에 파견하시여 당조직을 확대해나가도록 하시였다. 그가운데는 주력부대의 선전과장으로 사업한 권영벽동지도 있었다.

장백현당은 백두산밀영에서 조선인민혁명군당위원회를 열고 무슨 로선을 세우거나 긴급한 과업을 제기하면 그것을 제일먼저 접수하고 집행하는 중추적인 당조직의 하나였다.

장백현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중요하였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권영벽동지를 위원장으로 선정하시였다.

권영벽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 믿음을 목숨보다 귀중히 간직하였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나는 동무를 믿는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말씀을 한시도 잊지 않고 혁명에 충실하였다.

조국광복회의 기치아래
로동자, 농민과 함께 일제를 반대하는 소자산계급 청년학생, 지식인과 민족주의자, 량심적인 종교인들과 민족자본가들도 조국광복회조직에 결속하기 위한 조직정치활동을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우리는 갑산, 혜산, 신갈파, 삼수, 풍산으로부터 시작하여 청진, 함흥, 원산 나아가서 서울, 부산에 이르는 모든 도시들과 농어촌들에 조국광복회 하부조직을 시급히 내와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우리의 눈앞에 백두의 솔숲을 창창한 밀림을 배경으로 국내혁명가를 만나 투쟁방향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형상한 영상미술작품이 안겨왔다.

눈덮인 밀영에 찾아온 국내혁명가와 무릎을 마주하신 위대한 수령님, 조성된 국내형편도 물으시고 조국해방을 위한 투쟁방략을 환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으며 신심에 넘쳐있는 국내혁명가.

우리가 자주 보아오던 혁명영화 《민족의 태양》의 한 장면을 다시금 보는듯 하였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견실한 혁명가들을 찾아내여 그들과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조국광복회망을 빨리 늘이는것은 국내혁명운동을 더 높은 단계에로 추켜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였다.

그런 적임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달동지를 물색하시였다.

《조국을 사랑하며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국내의 애국자동무들 앞》

위대한 수령님께서 국내혁명가들에게 보내신 친서를 한자한자 읽어내려가는 강사의 목소리를 들느라니 어둠속에서 광명을 받아안은듯 너무 기뻐 《무쇠》라는 별명에 어울리지 않게 눈물까지 흘리던 박달동지의 모습이 안겨왔다.

그후 밀영에 찾아온 박달동지를 만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라는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자주적으로 당을 건설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주체25(1936)년 그해도 다 가는 12월 3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당공작위원회를 결성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국내당공작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박달동지의 사진과 수령님께서 국내혁명가들을 만나신 장백현 19도구 삼개골, 국내당공작위원회가 결성된 곰의골밀영의 사진을 참관자들은 주의깊게 바라보았다.

곰산밀영에서 진행된 국내당공작위원회 제2차회의는 국내에서 당조직건설과 혁명투쟁을 발전시켜나가는데서 뚜렷한 리정표로 되였다. 바로 이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조직건설과 당생활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할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였다.

《이 회의후 국내외의 각지에는 수많은 당조직들이 나오게 되였는데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결성하신 신갈파지구당소조도 그런 당조직들중의 하나였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하며 신갈파지구당소조가 결성된 석진양복점의 사진을 가리켰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권영벽, 김주현, 마동희, 리동학, 최경화, 김운신, 리창선, 리경운, 리병선동지들을 비롯한 성원들을 망라한 정치공작대는 북부조선의 여러 지역들에 파견되여 당조직건설사업과 군중과의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일본잡지 《동양》까지도 《1936년 김일성은 장백현에 들어와있으면서 반년동안에 조선안에 57개의 지부와 500명의 당원을 획득한 경이적인 사실이 있다.》고 밝히였다.

혁명력사학습을 통하여 항일혁명투쟁사에 대하여 알고있었지만 하나하나의 사적물들과 반증자료들을 통하여 백두산의 전설적영웅이신 우리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더더욱 가슴뜨겁게 절감하는 참관자들이였다.

조국광복회 장백현위원회 책임자 리제순동지의 사진과 그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안해에게 보낸 편지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혁명가가 한생을 보람있게 사는것도 중요하지만 죽을 때 값있게 죽는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가 심장에 파고들며 얼마전 이 유물앞에서 리제순동지의 딸이 읊었다면 시구절이 되새겨졌다.

청사초롱에 불밝혀라
그리운 장군의 모습
다시 보자
…

리제순동지가 최후를 앞두고 감옥에서 지은 이 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조국해방을 위하여 귀중한 목숨을 아낌없이 바쳐싸운 열혈투사의 불굴의 신념의 분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각계각층 군중을 조국광복회조직에 묶어세우기 위해 투쟁한 권영벽, 지태환, 리동걸동지들도 30대, 40대의 한창나이에 길지 않은 한생과 최후를 통하여 참된 혁명가의 삶의 본보기, 불굴의 신념에 대한 교과서를 우리 후대들에게 남기였다.

《김일성장군님은 우리모두의 태양이십니다. 우리모두 김일성장군님의 해발이 됩시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드는 길에서 충정의 해발이 되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뜻깊은 말씀이 새겨져있는 벽면에서 강사는 김정숙동지께서 장백현 도천리에서 조국광복회조직을 확대해나가신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장백현 하강구일대와 국내 동해안일대에 조국광복회조직들을 확대해나갈데 대한 임무를 받으시는 모습을 형상한 영상미술작품과 조국광복회 지하조직책임자들에게 사업방향을 주시고 조국광복회 신갈파지회산하 부녀회원들을 조직동원하시여 조선인민혁명군에 원호물자를 보내신것을 비롯하여 김정숙동지의 활동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사령관동지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어떤 어려운것이라도 무조건 해내신 그이의 높은 책임감을 말없이 전해주고있었다.

《무산집새애기》엄옥순, 이것이 그때 도천리인민들이 정답아 부르던 김정숙동지의 이름이였다.

국내의 북부지역인 신파지구에 혁명조직을 내오는것이 그처럼 어려운 일로 나섰을 때에도 김정숙동지께서는 적들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압록강을 넘나드시며 지하활동을 벌리시였고 드디여 석전양복점에서 조국광복회 신갈파지회를 결성하시였다.

김정숙동지의 체취가 어려있는 우물터, 빨래터, 연자방아자리, 그이께서 넘나드시던 압록강나루터와 물레방아간집, 광선사진관, 기념인장, 그이께서 도천리, 신파지구에서 활동하신 회상자료들…

김정숙동지께서 진행하신 지하공작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중에서 특별히 참관자들의 눈길을 끄는것은 그이께서 옥중투쟁을 견결히 벌리신데 대한 회상자료였다. 그때 김정숙동지께서는 한몸이 희생되는 한이 있어도 조직과 인민을 구원할것을 결심하시고 이런 편지를 보내시였다.

《안심하십시오.

나는 죽을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은 살것입니다. 나의 재산의 전부인 2원을 보냅니다. 조직의 자금으로 써주십시오.》

먼 후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00명의 광민보증서에 의해 김정숙동지께서 석방된데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강권이나 금권보다도 더 위력한 인민의 절대적신뢰와 지지가 그런 기적을 낳게 한것이라고 감회깊이 교시하시였다.

강사는 당시 도천리에서 구장을 하던 정동철동지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숙동지를 만나뵙고 뜨거운 믿음과 사랑을 받아안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방의 사법기관에서 일하고있던 정동철동지가 평양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가하게 되였는데 《장백현 도천리에서 살던 정동철동지가 참석하였으면 휴게실로 찾아오십시오.》라는 소리가 회의장을 울리는것이였다.

일군을 따라 아담한 벽돌집에 이른 정동철동지는 뜻밖에도 언제 한번 잊은적 없는 김정숙동지를 만나뵙게 되였다. 《옥순이!》하고 스스럼없이 부르며 정동철동지는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바쁜 일정을 미루시고 정동철동지를 만나시고 이게 얼마만인가, 어데 있다가 인제야 나타났는가고 하시며 무척 반가와하시였다.

강사의 목소리는 뜨거운 격정을 안고 울리였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쁨이 인민의 사랑을 받는것이라면 제일 큰 고통은 그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증오를 받는것이라고,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동무가 (구장)노릇을 하자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는가고, 그래서 자신께서는 도천리(구장)을 잊을수 없다고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습니다.

주체61(1972)년도 다 저물어가던 섣달 그믐날 정동철동지는 또다시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을 받아안았습니다. 정동철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수여해주시는 새 당원증을 받아안게 되였습니다.

그런데 당원증의 입당보증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활달한 친필존함이 새겨져있고 입당년월일은 1936년 5월 5일로 되여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동철동지가 조국광복회를 내올 때 당에 들었던것만큼 입당년월일을 1936년 5월 5일로 하였다고 깊은 뜻을 담아 교시하시였습니다.》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인 조국광복회가 창건된 뜻깊은 날을 정동철동지의 입당날자로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

여기에는 조국광복회 특수회원이였던 정동철동지에 대한 한량없는 믿음과 함께 조국광복회조직건설을 위해 무수한 피와 목숨을 바친 유명무명의 열혈투사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뜨거운 추억도 비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립하신 조국광복회 주요조직분포도》라고 씌여진 조선지도가 모두의 눈길을 끌었다. 만주전역과 조국땅 방방곡곡은 물론이고 일본땅에까지 조국광복회의 씨앗이 뿌려졌음을 무수히 반짝거리는 점들이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있었다.

10호실에는 또한 조선인민혁명군을 성의껏 원호한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자료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원호한 사람들가운데는 지주 김정부도 있었는데 그는 자기를 애국지주라고 불러주시고 밀영에서 생일상까지 차려주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매한 인품에 매혹되여 많은 자금과 천, 식량을 원군물자로 보내왔다.

강사는 당시 잡지 《삼천리》에 실린 위대한 수령님과 김정부와의 회견기와 그밖의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해주었다.

삼천리 방방곡곡에 휘날린 민족대단결의 위대한 기치, 그 기발아래 굳게 뭉쳐 우리 인민은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가》를 높이 부르며 조국해방을 위한 성전에 떨쳐나섰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전민족이 총동원되여 원쑤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을 안아온것처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전민총돌격전에서 혁신을 일으켜가겠습니다.》

《항일혁명선렬들이 끝까지 지켜싸운 불굴의 혁명신념을 피끓는 심장에 간직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충정다해 받들겠습니다.》…

10호실에 대한 참관을 마친 사람들속에서 이런 심장의 맹세가 끝없이 울려나왔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백영미

새 사단의 탄생과 첫 녀성중대

력사가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 조선총독부관하의 함경남도경찰부에는 녀성중대의 활동에 관한 여러건의 기록이 있었다고 한다. 거기에는 김일성부대의 부녀대원 박록금이하 40여명이 소화 11년(1936년) 음력 5월 초순경 무송현 시난차의 위만군 수비대를 공격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같은 시기에 그들이 대영을 습격하여 장총 10여정과 군복 등을 로획해갔다는 자료도 있었다. 녀성중대가 진행한 무송현 동강전투에 대한 자료도 수록되여있다.

새 사단의 탄생과 더불어 태여난 녀성중대에 대한 자료가 혁명전통교양의 대전당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여있다.

조국을 위해 꽃다운 청춘을 바친 항일혁명렬사들의 군상을 돌이켜볼 때마다 인민은 그 군상의 한복판에 있는 녀성중대원들과 대담무쌍한 녀장부들을 추억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녀성들은 편이 아니라 선혈로써 대지우에 자기의 새 력사를 쓰기 시작하였다.》

새 사단의 편성과 함께 많은 녀대원들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에 들어왔다. 그들은 총을 잡고 아버지, 어머니, 오빠를 학살한 원쑤놈들을 쳐부시고 부모형제들의 원한을 풀고싶어하였다.

그들의 이러한 심정을 헤아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대원들로 부대를 하나 따로 무어주기로 결심하시고 지휘관들에게 의견을 물으시였다.

지휘관들은 선뜻 말씀을 올리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미혼진밀영에서 혼성부대가 만강부근에 도착하였다. 혼성부대라고 하지만 그속에 4~5명의 대원들만이 남자였고 나머지는 전부 녀성들이였다.

모두를 반갑게 맞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기로 오게 된 경위와 행군도중에 있은 일들을 하나하나 물으시고나서 그들을 통해 녀성들에 대한 일부 지휘관들의 그릇된 생각을 깨우쳐주실 결심을 하시였다.

남대원들중에서 힘이 제일 세다고 하는 한 동무를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녀대원이 지고온 배낭과 무기들을 지게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 짐과 총을 가지고 휴식없이 얼마만 한 거리까지 행군할수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10리쯤 쉬지 않고 갈것 같다는 대원의 대답을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는 다른 녀대원의 짐과 토롱 2자루를 지우시며 얼마나 갈수 있는가고 또다시 물으시였다.

5리쯤 갈수 있다는 대원의 말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대원에게 그 짐을 지고 얼마나 행군해왔는가고 하시였다.

쑥스러워하며 대답을 못 드리고 머리를 수그리는 그를 대신하여 옆에 있던 녀대원이 대포시하에서 전투를 치른 다음 만강까지 그 짐을 지고 쉬임없이 행군해왔다고 말씀드리였다.

그 거리는 거의 100리나 되였다. 녀성중대조직을 의문시하던 지휘관들은 말할것도 없고 남대원들모두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대원들이 진행한 전투담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게 하시였다.

사령부를 찾아오는 도중 식량이 떨어져 고생하던 그들은 어떤 반일부대를 만나 대포시하부근의 집단부락을 기습하게 되였다. 이 전투에서 반일부대병사들은 좋은 신식총을 가지고도 적들이 반격해오자 겁이 나서 도망쳤지만 녀대원들은 토롱으로 적을 본때있게 족쳤다.

그 전투담을 들은 남대원들모두가 녀대원들의 용감성과 대담성, 견인불발성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결국 녀성들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녀성중대조직을 달갑지 않게 여기던 지휘관들은 자기들의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수 없었다.

주체25(1936)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강의 수림속에서 사령부를 찾아 각지에서 모여온 녀성들로 중대를 조직하시였다. 녀성중대결성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먼 후날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회고하시였다.

녀성중대는 우리 나라 군건설력사상 처음으로 생겨난 녀성전투구분대였다고, 녀성중대의 탄생은 수천년동안 고질화되여왔던 남존녀비사상과 인습을 타파하고 녀성들의 정신적지위와 사회적지위를 실제적으로 남성들과 동등한 수평선상에 올려세운 하나의 사변이였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성중대의 첫 중대장으로 박록금동지를 임명하시였다. 많은 전우들이 단마디로 녀장부라고 규정한 첫 녀성중대장의 사진이 조선혁명박물관에 전시되여있다.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사에는 수많은 녀투사들의 모습이 새겨져있다. 그들은 어느 전투에서나 잊을수 없는 무훈담을 남기였다.

성스러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항일의 녀투사들은 연약한 녀성의 몸으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시련과 역경의 언덕들을 무수히 넘고 헤치면서도 지어 단두대와 철창속에서도 혁명적절개와 지조를 굽히지 않고 불사신처럼 싸울수 있었던것이다.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길이길이 따라배울 불멸의 위훈을 녀성중대는 항일혁명투쟁사에 선혈로 진하게 아로새기였다.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수많은 녀성구분대들, 그 자랑스러운 대오를 보며 사람들은 이 나라 녀성무장대의 원형인 조선인민혁명군 사령부직속 녀성중대를 뜨겁게 추억한다.

본사기자 리금분

청년강국의 기상 떨치며 백두의 행군길 힘차게 이어가리

전국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와 함께

천만군민이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설계도따라 만리마속도창조대전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국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달려온 수백명 답사행군대원들은 대오앞에 붉은기를 휘날리며 항일의 전구들을 종횡무진하였다. 그들과 함께 수백리 답사행군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청년강국의 기상 떨치며 백두의 행군길을 힘차게 이어가는 조선청년들의 드팀없는 의지를 다시금 가슴뿌듯이 느끼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중앙이 가리키는 조선혁명의 침로따라 폭풍쳐 나아가는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과 청년들앞에는 광활한 미래가 펼쳐져있으며 조선청년운동의 전도는 끝없이 양양합니다.》

지난 6월초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을 맞으며 전국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는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을 출발하였다.

공화국기와 청년동맹기발을 휘날리며 답사행군대원들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을 힘차게 다그쳤다.

우리는 《가리라 백두산으로》의 노래를 목청껏 부르며 보무당당히 나아가는 대오에서 김덕광업련합기업소 김덕갱 차광수청년돌격대 대장을 만났다.

《우리 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는 금골광산 4.5갱 고경찬영웅소대의 뒤를 이어 년간계획을 완수한 소대들이 련이어 배출되고있습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 각 도답사행군대원들의 얼굴마다에도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력사적대진군에서 청년전위들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할 굳은 결의가 어려있었다.

력사의 땅 보천보에 도착한 우리는 답사자들과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가림천기슭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인산인해를 이룬 군중을 향해 조선은 죽지 않았으며 조선의 심장도 살아있다고 불같이 웨치시던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

보천보의 불길은 주체혁명승리의 길을 밝히며 오늘도 최후승리를 향한 총진군대오에 백두의 신념과 애국충정의 숨결을 더해주고있다는것을 우리는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이날 저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80돐을 맞으며 청년학생들의 횃불행진 및 우등불모임이 진행되였다.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퍼지는 속에 청년전위들의 장엄한 횃불행진이 시작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울리신 신호총성과 더불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경찰관주재소, 면사무소 등 적통치기관들에 복수의 불벼락을 안겼던 전투장소들을 지나는 횃불행진대오들에서 《유격대행진곡》이 힘차게 울려퍼졌다.

이날 낮에 우리는 답사행군대와 함께 곤장덕혁명전적지를 찾았다.

지금으로부터 80년전 항일혁명선렬들의 발자취가 새겨진 력사의 곤장덕으로 오르는 답사행군대원들의 감회는 류달리 깊었다.

갑자기 먹장구름이 몰려오더니 삽시에 창살같은 비발이 쏟아지고 어느덧 그것은 우박으로 변하였다. 온몸은 젖어들었지만 답사행군대원들은 혁명가요를 목청껏 부르며 행군을 다그쳤다.

앞장에서 웨치는 한 청년동맹일군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동무들! 힘을 내자. 백두산이 우리를 부른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강의한 신념과 혁명적의지를 그대로 체현해나가는 미덥고 장한 우리 청년들이였다.

행군의 휴식참마다 한바탕 펼치는 답사행군대원들의 오락회와 군중무용이 인기를 끌었다.

백두산으로 향하는 행군길은 순탄치 않았다. 땅으로 꺼졌던 물이 어지간히 마르면 답사행군대원들의 몸에 하얀 소금띠가 내돋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더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였다.

청봉과 건창, 베개봉숙영지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답사행군대원들은 천재적인 군사지략과 전술로 강도 일제에게 섬멸적타격을 주고 전민족을 조국해방성전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설적위인상을 심장깊이 새겨안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첫 답사행군대를 이끄시고 성스러운 백두의 행군길에 오르신 력사의 발자취가 아로새겨진 리명수폭포와 삼지연읍산마을 귀틀집을 비롯한 혁명사적지들에서 답사행군대원들은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답사행군대오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로 향하였다.

오늘의 새로운 시대정신인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을 낳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답사행군대원들은 어찌하여 우리 원수님께서 성스러운 항일혁명의 전구, 온 나라가 걷는 백두의 행군길을 영웅청년신화가 창조된 여기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에 이어주시였는가를 가슴깊이 새겼다.

이어 답사행군대오는 조선의 대통운을 안아온 정일봉으로 향하였다.

전동 들린 회창가로 백두광명성탄생을 알리던 백두산밀영고향집, 소박한 귀틀집의 폭우이포단이며 키낮은 책상우의 《조선지도문추기》, 나무필통…

답사행군대원들은 항일전쟁의 포성이 울리는 격전장에서 시대와 혁명의 요구를 한몸에 안으시고 탄생하신 우리 장군님, 한생을 오로지 불길과도 같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신 백두령장의 성스러운 혁명생애가 소중히 어려와 숨을 적시였다.

드디여 답사행군대오는 백두산정에 올랐다.

백두산에서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기 위한 전국청년학생들의 맹세모임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그이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갈것을 엄숙히 맹세하는 답사행군대원들의 우렁찬 목소리는 백두의 메아리로 높이 울려퍼지였다. 선군혁명의 영원한 동태인 백두산천지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한생토록 걸으신 성스러운 백두의 행군길을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끝까지 걸어갈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는 우리 혁명의 미더운 계승자들은 서로 어깨를 겯고 청년행군가요를 힘차게 불렀다.

진정 전국청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에로의 답사행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횃불을 지펴올리신 보천보를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의 혁명전통을 조선의 영원한 사상정신적재보로 빛내이며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는 주체혁명위업의 맹장들로 억세게 준비해갈 신념을 백배해준 성스러운 행군이였다.

특파기자 전철주

련속공격전으로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자

군민협동작전의 위력 떨치며

중화군에서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중화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군군인들과 힘을 합쳐 불과 며칠동안에 천수백m구간의 하천정리를 해제끼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하였다.

어룡, 어부산저수지로 흘러드는 물길이 시작되는 하천정리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재송, 명월, 관풍, 읍협동농장을 비롯한 여러 농장의 농사에 필요한 물을 더 많이 확보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큰물이 나면 물이 넘어나 물길주변의 밭들에 침습하여 토지가 류실되고 수확고에 영향을 주던 현상을 극복할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 말로써 대답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대고 실천으로 대답하는것이 애국자의 자세입니다. 》

이번에 진행한 하천정리는 수천㎥의 토량을 처리하고 천수백m구간의 물길바닥파기와 수천㎡의 장석공사를 해야 하는 아름찬 과제였다.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여러갈래의 물줄기들이 합쳐지는 곳이고 읍으로부터 수십리나 떨어진 이곳에 수많은 로력과 자재, 륜전기재들을 집중적으로 동원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더우기 한편에서는 가물피해막이전투가 한창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지만 군당위원장 조정성동무를 비롯한 군책임일군들은 뜻깊은 올해의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는데서 장마철피해막이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이 사업을 자신들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관점과 립장에서 대담하고 통이 큰 목표를 세웠다.

가물피해막이전투를 통하여 최대로 앙양된 대중의 정신력을 총발동시켜 제일 위험개소인 룡동천상류의 하천정리를 와닥닥 끝내는것으로써 알곡증산을 위한 또 하나의 돌파구를 열자.

일군들모두가 이런 불같은 열의로 심장을 끓이였다.

군당위원장이 수십리의 험한 령길을 오가며 구체적실태를 료해하고 현지에서 협의회를 열며 면밀한 작전안을 세워나갔다.

며칠안에 끝낼 계획을 세우고 타산해보니 수천명의 로력과 많은 자재, 수십대의 륜전기재들이 요구되였다.

방도는 무엇인가.

이때 이들에게 큰 힘을 준것은 군대와 인민이 힘을 합치면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환시킬수 있다고 하면서 룡동천정리공사를 전적으로 지지찬동해준 황장섭, 리병순동무들을 비롯하여 가물피해막이전투를 위해 군에 파견되여온 인민군대지휘관들의 뜨거운 고무였다.

공사에서 제일 걸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깊은 밤에도 수백리길을 다녀오는 황장섭동무의 헌신적인 모습은 군일군들에게 저렇듯 미더운 인민군대지휘관들과 함께라면 아무리 조건이 어렵고 공사량이 방대하다고 해도 얼마든지 계획대로 진척시킬수 있다는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불이 번쩍 나게 3일동안에!

이것이 그들이 세운 전투목표였다.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군민협동작전으로 공사시작부터 폭풍처럼,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전격적으로, 립체적으로 전투를 벌려나갔다.

수천명의 로력과 불도젤, 뜨락또르, 화물자동차, 경운기를 비롯한 수십대의 륜전기재가 동원된 공사장은 그야말로 시간을 다투는 전투장을 방불케 하였고 공사장에 떨쳐나선 사람들모두가 돌격전에 나선 화선용사의 모습그대로였다.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 높이 울리고 군책임일군들과 인민군대지휘관들이 무거운 짐들을 지고 앞장에서 내달리며 전투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몇시간을 두고 억수로 쏟아지는 대줄기같은 비속에서도 충천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공사를 내밀었다.

목표가 명백하고 과학적으로 짜고든 조직사업이 치밀하니 시간마다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여 계획보다 하루를 앞당겨 공사는 성과적으로 결속되였다.

군대와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밤낮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린 나날들…

실로 군대와 인민이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시간마다 꽃피우며 혈연적뉴대가 더욱 깊어진 날과 날이였다.

불과 며칠동안에 룡동천상류는 본래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이 번듯하게 정리되였다. 이 공사를 진행하여 장마철피해를 막고 알곡증수의 담보를 마련한것은 두말할것없이 큰 성과이다.

하지만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이 길지 않은 공사과정을 통하여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군민이 단합된 힘으로 결사관철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나간다면 조건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것을 실지로 체험하였다고.

진정 이것이야말로 공사를 통해 얻은 성과중에서도 제일 큰 성과가 아니겠는가.

지금 중화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충룡천정리도 박력있게 밀고나가면서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영진

피해를 받을수 있는 대상부터

맹산군에서

맹산군에서 큰물피해를 받을수 있는 대상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큰물피해를 받을수 있는 지역, 대상들에 나가 강바닥파기와 물길쳐기, 도랑석축공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큰물로부터 농경지의 류실을 막고 농작물을 보호할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하천정리사업에 힘을 넣어 큰물피해를 막고 강하천주변을 보기 좋게 잘 꾸려야 합니다. 》

군책임일군들은 많은 농경지가 골안에 위치하고있는 군의 특성에 맞게 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의 중심을 골짜기가 깊은 지역의 상류를 정리하는데서 찾고 이 사업을 예견성있게 내밀었다. 특히 지난 시기의 교훈에 기초하여 비가 많이 내려 순식간에 골짜기에 물이 차지 않게 강바닥을 깊이 파면서 물길쳐기와 도랑석축공사를 진행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공사량이 방대한데 맞게 력량을 집중하여 한개 대상씩 집중적으로 끝내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장동리의 하천바닥파기에로 대중을 불러일으켰다.

군안의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물론 농장원들까지 떨쳐나 힘을 합쳐 시작부터 드센 공격전을 들이댔다. 그들은 강바닥을 파고 강뚝을 보강하면서 마대전, 맞불이전을 벌리였다. 그리고 제일 힘든 구간들에는 기계수단들을 들이밀어 공사속도를 더욱 높이게 하였다.

일군들의 치밀한 조직사업과 대중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불과 한주일동안에 근 1만㎥의 토량을 처리하여 이 지역에 대한 강바닥파기와 물길쳐기공사가 성과적으로 끝났다.

군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대흥, 수전리의 하천들에 대한 강바닥파기와 물길쳐기, 도랑석축공사도 힘있게 내밀었다. 일군들이 공사가 힘있게 추진되는데 맞게 모든 대상공사를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앞장에서 실천적모범을 보이였다. 군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가 건설한 창조물들이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 맡은 대상공사에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였다. 그리하여 이 공사도 짧은 기간에 질적으로 끝나게 되였다.

군에서는 이미 저수지들에 수백㎡의 잔디를 입히고 1 000여정보의 비탈밭들에 물뚝다락밭을 조성한데 기초하여 큰물이 넘지 않도록 도랑들과 강냉이밭들에 대한 배수로공사도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군급기관들과 주민들이 읍협동농장에 나가 고인물에 의한 피해를 입을수 있는 강냉이밭들에 배수로를 내기 위한 공사를 적극 도와나섰다. 그리하여 큰물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할수 있게 하였다.

지금 군안의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해놓은데 맞게 장마철농작물비배관리에 더욱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한마음한뜻이 되여

신의주시 연하협동농장에서

신의주시 연하협동농장에서 큰물피해막이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현재 수백m에 달하는 제방 및 뚝막이전투가 전개되여 농장적으로 100여정보의 논밭을 큰물로부터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군민협동작전은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나가는 위력한 투쟁방식입니다. 》

큰물피해를 막을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도와 시의 책임일군들은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이 사업을 립체적으로 내밀기 위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을 벌리였다. 여러 하천으로 둘러싸여있는 협동농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 시안의 책임일군들은 장마피해로부터 논밭을 보호하기 위해 제방공사와 7개소의 뚝막이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었다.

제방길이가 200여m나 되는 곳곳에 붉은기들이 펄펄 휘날리는 공사전역은 그야말로 불도가니로 끓어번지였다. 인민군대지휘관들과 군인들은 수백㎥의 혼석을 날라 쌓아야 하는 아름찬 일감이였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은 곧 실천이고 승리라는 철의 진리를 심장에 조아박고 군인기질, 군인본때를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공사에 동원된 군인들은 일격에 산도 떠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혁명적군인정신으로 마대전을 벌리면서 시간을 주름잡으며 높은 실적을 기록하였다.

불같은 련속공격전을 들이대는 인민군군인들의 투쟁정신에 무한히 고무된 이곳 농업근로자들과 동상동을 비롯한 많은 동의 1 000여명의 가두인민반원들도 기세를 부쩍 올리였다.

군민이 한마음한뜻이 되여 떨쳐나선 결과 혼석을 채운 수만개의 마대로 이루어진 제방이 새로 생겨나 큰물에 끄떡없게 된것은 물론 연하천정리사업도 동시에 추진되여 일거량득하였다. 종전같으면 엄두도 못내던 일감을 단 18시간만에 해제끼는 놀라운 성과가 창조된것은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안아온 자랑찬 결실이였다.

농장일군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들은 또다시 군민협동작전으로 길이가 수십m나 되는 뚝막이공사에 달라붙었다. 투쟁의 앞장에는 언제나 인민군군인들이 서있었다. 가물피해를 극복하는것 못지 않게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전투도 중요하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였다. 그리하여 이 공사를 불과 8시간동안에 결속하는 혁신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여기서만도 거의 8정보의 논밭을 큰물피해로부터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공사의 나날 군대는 인민을 돕고 인민은 군대를 위하는 뜨거운 정이 오가는 아름다운 화폭이 펼쳐져 사람들의 심금을 크게 울려주었다. 투쟁과정에 농업근로자들은 군민대단결의 위력을 발휘하면 아무리 방대한 일감도 얼마든지 해낼수 있다는 신심을 더욱 굳히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농장에서는 여러 작업반들에서 크고작은 뚝막이를 자체로 하기 위한 투쟁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많은 면적의 농경지에서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결과 농장적으로 100여정보의 논밭을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본사기자 오철훈

나무모밭이 피해를 입지 않게

세포군산림경영소에서

큰물피해막이대책을 세우는데서 작은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세포군산림경영소의 경우가 그에 대해 잘 말해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

이곳 일군들은 큰물피해막이대책을 세우면서 몇해전에 낸 개울에 깊은 주의를 돌리였다. 한것은 물이 개울을 넘어나는 경우 생산건물들은 물론 모체양묘장에 큰 영향을 줄수 있기때문이였다.

물론 이전에는 그런 위험이 없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일없다는 담보는 없었다. 더우기 올해에는 그전보다 나무모생산목표를 두배나 높이 세운것만큼 양묘장보호는 산림복구전투에서 사활적인 문제였다.

그들은 대중을 불러일으켜 개울을 정리하기 위한 공사를 조직하였다.

정리구간은 100여m에 달하였다. 일군들은 여기서 일정한 구간에는 그냥 돌만을 쌓아 제방을 형성하기로 하였다. 개울이 큰 하천과 이어지기 전 수십m구간에서는 그 폭을 점차 넓히면서 세멘트혼합물을 놓고 돌을 축조하는 방법으로 광폭제방을 쌓을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개울정리 전구간에 돌과 콩크리트구조물로 계단을 형성함으로써 물의 흐름속도를 늦추어 제방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타산을 면밀히 하였다.

이렇게 공사계획을 세웠지만 막상 그것을 수행하자니 적지 않은 로력과 자재가 요구되였다. 하지만 일군들은 한몸이 그대로 제방이 되여서라도 산림복구전투에서 병기창과 같은 양묘장을 지켜내야 한다는 각오밑에 10여t의 세멘트와 각각 수십㎥의 막돌, 혼석 등을 자체로 해결하였다.

공사는 여러 작업조를 뭇고 조들사이 사회주의경쟁을 벌리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나무모비배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면서 이 공사를 한다는것이 결코 헐한 일은 아니였다. 그러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양묘장보호이자 산림복구실적이라는것을 명심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그들은 한쪽으로 나무모비배관리를 하면서 이른아침과 저녁시간을 리용하여 공사를 완강하게 내밀어 한주일만에 끝내였다.

그 보람이 컸다. 얼마전 군에는 많은 비가 내리였다. 그로 하여 이 개울로도 엄청나게 많은 물이 흐르면서 길길이 날뛰였지만 제방을 넘어 양묘장을 침수시키지 못하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이 사실을 놓고 마음을 놓은것이 아니라 더 긴장하여 분발하고있다.

그들은 자연의 도전이 앞으로 더 횡포해질수 있다는것을 각오하고 큰물피해막이대책을 보다 철저히 세우는데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철

작은것이란 없다

장림광산에서

지난 어느날 새벽문을 남먼저 열고 나가 장림광산주변을 차례로 돌아보던 이곳 당책임일군은 어느 한곳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일욕심, 진취적인 사업태도를 가지고 최대의 마력을 내야 하며 당과 인민앞에 자기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

도로의 비탈면에 계단식으로 쌓은 옹벽의 2m정도 되는 구간이 웃면을 완성하지 못한채로 남아있었던것이다. 알고보니 해당 단위에서는 큰물피해로까지 번져질 문제가 아니라는데로부터 이 작업을 여가시간에 하기로 미루고있었다. 그 일군은 짚이는바가 있어 다른 단위들에도 가보았지만 정도의 차이뿐이지 실태는 엇비슷하였다.

개미구멍 하나가 큰 제방뚝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듯이 돌이킬수 없는 후과의 원인은 항상 이런 작은 문제를 하찮게 여긴데로부터 시작되는것이다. 더우기 장마철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당정책적요구에 비추어볼 때 이것은 결코 소홀히 대할 작은 문제가 아니였다.

이로부터 큰물피해막이에서의 빈틈은 곧 당정책관철에서의 공백이라는 관점에서 장마철피해막이대책과 관련한 보다 면밀한 사업들이 즉시 전개되였다.

일군들부터가 큰물피해를 받을수 있는 대상들을 예민하게 포착하는 즉시 제때에 적절한 대책들을 세워나가니 큰물피해막이에서 국부적으로 남아있던 빈구석들은 하나하나 자취를 감추었다.

현대화갱에서는 미완성으로 남아있던 옹벽들의 웃면보수작업이 오전 한겻동안에 끝났을뿐아니라 차일피일하며 미루어오던 도로포장공사도 짧은 기간에 결속되였다. 비물에 씻겨내린 돌과 모래가 하천에 흘러들지 않도록 빈틈없는 물빼기대책을 세워놓은 충성갱을 비롯하여 모든 단위들에서도 큰물피해막이와 관련하여 미진되였던 작업과제들이 수행되였다. 결과 귀중한 토지와 살림집, 공공건물, 도로들을 큰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성과가 클수록 광산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골짜기마다 새로 놓은 배수로들에서 물흐름속도를 낮추고 비물에 씻겨내린 흙과 돌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놓치지 않고 진행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성일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재령군 신환포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김종훈 찍음

도예술극장건설 적극 추진

자강도에서

풍치수려한 장자강기슭에 자강도예술극장이 빠른 속도로 일떠서고있다.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년돌격대원들은 관람석과 승강무대와 이동무대, 전시홀 등으로 이루어진 규모가 비교적 큰 극장건설을 본격적인 단계에서 내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다그쳐 전체 인민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

도당위원회에서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데 대한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예술극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일떠세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현장지휘부를 조직하고 기계설비들과 자재보장을 앞세워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다그쳐 끝낼수 있게 적극 떠밀어주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문명강국건설구상을 먼 앞장에서 현실로 꽃피울 불타는 열의밑에 일군들과 도청년돌격대원들은 강원도정신창조자들처럼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자강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면서 도예술극장건설에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일군들은 만리마시대 혁명의 지휘성원들답게 들끓는 전투현장에 몸을 잠그고 힘있는 정치사업과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고무추동하고있다.

도예술단배우들과 도예술선전대, 여러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만리마시대의 영예로운 창조자답게 맡은 건설물의 질과 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가고있다.

당이 부르는 어렵고 힘든 건설장마다에서 강계정신의 창조자들답게 위훈만을 새겨온 청년돌격대원들은 본래 있던 극장을 통채로 들어내고 기초굴착과 기초콩크리트치기를 짧은 기간에 다그쳐 끝낸 기세로 벽체와 층막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혁신의 앞장에는 1대대와 5대대의 청년돌격대원들이 서있다.

청년돌격대원들은 건설에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 섬멸전, 립체전을 벌려 공사속도와 질을 높여나가고있다.

그들은 선행공정인 휘틀조립과 철근조립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혼합기와 진동다짐기의 가동률을 높여 련일 실적을 올리고있다. 2대대와 4대대의 전투원들도 세멘트와 골재가 선행되는데 맞게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혼합물다짐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매일 맡겨진 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운수중대의 운전사들은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포탄을 보장하기 위해 불비속을 달리던 전화의 용사들처럼 세멘트와 골재수송전투를 긴장하게 벌리고있다. 삽차와 유압식굴착기운전공들은 자섭지수를 정상적으로 하면서 세멘트와 골재수송을 원만히 뒤받침해주고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달려나온 용접공들은 높은 책임감을 안고 작업공정에 따르는 철근가공과 용접작업에서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있다.

건설에 참가한 일군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짧은 기간에 총공사량의 많은 몫을 해제낀 기세를 늦추지 않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김순룡

자력자강으로 안아온 자랑찬 전변

곡산군세멘트공장 지배인 김태선동무와 종업원들

곡산군세멘트공장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모든 건물들이 새로 번듯하게 일떠섰고 공장구내에는 수백그루의 과일나무들이 우거져 열매들이 무르익고있다.

제힘으로 번듯하게 꾸려놓은 일터에서 이곳 종업원들은 최근년간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올해에도 과감한 생산돌격전을 들이댐으로써 년간계획을 지난 6월 21일까지 앞당겨 완수하였다.

물론 이 사실도 좋다. 하지만 기술개건과 후방사업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더욱 주목할만 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혁명정신입니다. 》

9년전 어느날 새로 임명된 지배인 김태선동무는 말없이 공장안팎을 돌아보았다.

설비들은 낡고 뒤떨어진것뿐이였고 건물들에는 그 전해에 입은 큰물피해의 흔적이 력력히 남아있었다. 형편이 그러하다나니 출근부에는 빈자리가 많았고 공장에 남아있는 종업원들도 얼마 되지 않았다.

김태선동무는 주저앉은 공장을 추켜세워야 할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웠다.

며칠후 지배인은 종업원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조건은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공장을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길지 않은 이 말과 함께 그는 건물들을 새로 일떠세우는 투쟁의 앞장에 섰다. 생산은 생산대로 추켜세우면서 건설을 동시에 진행한다는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로력과 자재도 매우 부족했고 당장 어디에서 뚝 떼여다 쓸 여유도 없었다.

그러나 김태선동무는 한번 결심하고 떠난 그 길에서 절대로 물러설수 없었다. 그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당의 뜻을 걸음걸음 새기며 로동자들과 일도 같이하고 침식도 함께 하였으며 후방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일군의 헌신적인 이신작칙에 고무되여 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도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드디여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체의 힘으로 생산건물과 창고, 사무청사와 식당, 리발실, 목욕탕을 비롯한 여러동의 건물들을 새로 번듯하게 일떠세웠다.

김태선동무와 종업원들은 또다시 설비개조와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웠다. 지배인부터가 밤을 새워가며 필요한 기술서적들을 탐독하고 또 출장길에는 과학연구기관들을 찾으며 필요한 과학기술지식들을 배워나갔다.

기발한 착상으로 새로운 제진장치를 만들어 굴뚝으로 나오던 먼지와 가스를 없애고 깨끗한 생산환경을 마련한것도, 분석실을 새로 꾸리고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원료배합의 과학성과 정확성을 보장한것도, 원료작업반의 설비들을 개조하고 원료공급계통의 CNC화를 실현하여 생산능력을 2배로 높이고 제품의 질을 개선한것도 그 나날에 이룩된 성과였다.

자기들도 믿기 어려운 기적을 창조하는 종업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은 날로 커갔다. 누구나 공장을 흥하게 하는 열쇠는 바로 자기들의 손에 쥐여져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체득하고 더 좋은 래일을 앞당기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그럴수록 종업원들을 위하는 지배인의 마음은 더해만 갔다. 자신은 공장에서 생활하다싶이 하면서도 종업원들의 살림집개건에 필요한 자재를 선참으로 해결해주고 그들의 새 집부터 지어주었다. 부모없는 종업원들을 위해 숙소도 마련해주고 그들의 생활을 친부모된 심정으로 돌봐주고있는 사실, 종업원들의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 몇밤을 새우며 수백리길을 다녀오군 하였다는 사실이며 또 어느해인가는 명절을 계기로 종업원들의 매 가정들에 가정용품은 물론 나들이옷까지 일식으로 마련해주었다는 사실들은 종업원들을 위해 아글타글 애써온 지배인의 뜨거운 인정미를 잘 보여주고있다.

지금 실리가 나게 꾸려놓은 공장의 남새온실과 축사, 버섯생산기지를 비롯한 후방기지의 덕을 로동자들은 단단히 보고있다.

뿌리없는 나무를 생각할수 없듯이 오직 제힘으로 공장의 래일을 앞당기려는 땀과 열정이 없이 일터의 새 모습을 바랄수 없으며 더 좋은 앞날도 기대할수 없다.

그렇다.

자기 일터에 대한 긍지,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 주인으로서의 자각도 커지고 더 많은 땀을 바친다.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며 어떤 일이든지 결심하고 달라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자신심, 자강력이 제일이고 자력자강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크지 않은 이 공장을 돌아보면서 다시금 느낄수 있었다.

최영조

그들이 걸은 밤길

대줄기같은 소낙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지난 어느날 밤 락랑구역 류소남새전문협동농장 농산 제3작업반 반장 김원선동무는 전지불을 켜들고 집을 나섰다.

20여년간 반장사업을 해오면서 번개가 치고 우뢰가 우는 밤이면 포전을 돌아보는것이 어느덧 그의 습관처럼 되였다.

강냉이밭에 친 새끼줄이 끊어진것은 없는가, 물은 쭉쭉 빠지는가를 살펴보던 그의 발걸음은 논으로 향하였다.

배수로상태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집에 들어가도 잠들것 같지 않았던것이다.

그런데 그쪽에서 마주오는 또 하나의 불빛이 있었다.

(혹시 또 …)

가까이 다가가보니 아닌게 아니라 부문당위원장 최성민동무였다.

김원선동무는 그도 포전이 걱정되여 나왔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우리 작업반동무들이 얼마나 알심있게 일했는지 아무리 큰비가 와도 배수로는 마음놓아도 되겠다는 그의 말은 작업반장의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해주었다.

그날 밤 그들은 몸은 비록 지치고 피로하였지만 풍요한 가을을 그려보며 마지막포전까지 돌아보고야말았다.

진정 이런 미더운 초급일군들이 있기에 이 작업반이 해마다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단위로 손꼽히는것이 아니겠는가.

본사기자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천으로 받들어가는 총돌격전의 기수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체육인들은 선군시대 혁명적체육인의 영예로운 본분과 조국과 인민의 높은 기대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전위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만리마의 기상으로 비약하는 조국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 체육강국건설을 위한 진군의 앞장에서 내달리며 자랑찬 성과를 이룩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감독, 연구사들의 투쟁기풍이 온 나라 체육인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더해주고있다.

당정책관철의 선구자, 통이 큰 실천가

박제원동무가 단장사업을 시작하던 몇해전의 대성산체육단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대비해보며 누구나 한결같이 말한다. 천지개벽되였다고.

놀라운 전변은 절로 이룩된것이 아니다. 이렇다할 경험도 없었던 그에게 있어서 체육단사업은 힘에 부친것이였다.

하지만 당의 믿음을 심장깊이 새긴 그는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체육단을 전변시킬 결심을 억척같이 세웠다. 시간을 아껴가며 당정책을 열심히 학습할수록 일군의 눈은 더욱 밝아졌고 배심도 든든해졌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먼저 집단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켜 단 넉달만에 3층짜리 선수기숙사를 완공함으로써 전체 종업원들에게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게 다져준 다음 그 기세로 4층으로 된 종합청사를 일떠세우고 과학기술보급실 등을 갖춘 2층건물과 육체훈련관, 야외훈련장을 비롯한 방대한 대상공사를 대담하게 내밀었으며 온 체육단을 사상교양의 거점으로 전변시키였다.

목표가 높아질수록 애로와 난관도 많아졌다. 그때마다 박제원동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몸소 빙상휘거모범출연을 보아주시며 남기신 유훈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귀한 가르치심을 되새기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렸다.

자질향상과 기술발전을 위한 감독, 선수들의 경쟁열의를 부쩍 높여주고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실현의 된바람을 일으켰다.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 200일전투기간 체육단에 능력이 큰 랭동설비가 갖추어지고 로라스케트장이 꾸려졌으며 3층으로 된 청소년체육학교건물이 새로 일떠선데 이어 올해에는 육체훈련관과 식당이 더 잘 꾸려지고 수백벌의 훈련복과 경기복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는것과 같은 성과들도 대오의 앞장에서 기관차가 되어 종업원대중을 집단적혁신에로 불러일으킨 박제원동무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날로 전변되는 체육단의 모습과 더불어 또 얼마나 자랑찬 경기성과들이 이룩되였던가.

최근년간에 대성산체육단 선수들은 겨울철체육종목에서 국내패권을 쥐였을뿐아니라 특히 지난해에 여러 국제경기들에서 5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11개의 메달을 쟁취하였으며 올해에는 제8차 겨울철아시아경기대회 빙상휘거 성인급 쌍경기에서 남조선, 일본선수들을 누르고 순위권에 입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박제원동무는 말하였다.

《우리 체육단은 앞으로도 절세위인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자력자강의 기치를 변함없이 추켜들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해나가겠습니다.》

끝장을 볼 때까지

지난해 6월 어느날 한창 개발중인 프로그람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있던 력천시청소년체육학교 체육과학연구사 리금철동무는 교장 전경철동무의 손길에 이끌려 보기에도 구미가 동하는 음식들이 차려진 식탁을 마주하게 되였다. 동무의 연구가 빨리 성공해야 학교사업에서 비약을 일으킬수 있다고, 어서 많이 들고 힘을 내라고 하는 교장의 뜨거운 진정에 그는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리금철동무가 연구종자를 제기하였을 때에도 제일먼저 지지해나선 교장이였고 연구현장에 자주 찾아와 용기를 북돋아주며 프로그람을 철저히 학교실정에 맞게 개발하도록 이끌어주고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든 전경철동무였다.

성공의 그날을 위해 힘과 열정을 합쳐주며 끝까지 밀어주는 일군의 그 진정에 고무된 연구사는 낮에 밤을 이어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마침내 프로그람을 완성하였으며 제20차 전국체육과학기술성과전시회에 출품하여 1등의 영예를 지니고 학교학생들의 육체적능력향상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이것을 통해서도 체육을 과학화할데 대한 당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끝장을 볼 때까지 내미는 전경철동무의 일본새를 잘 알수 있다.

시당위원회의 적극적인 방조속에 수천㎡의 학교구내를 새로 포장하고 종합훈련관, 학생휴게실 등을 훌륭히 꾸리기 위한 방대한 공사과제를 수행하는 속에서도 전경철동무가 순간도 놓치지 않고 강하게 밀고나간것이 바로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실현을 위한 사업이였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지도교원들의 콤퓨터학습을 중단없이 내밀었고 올해에 들어와 정보기술학습실에 성능높은 콤퓨터들을 갖추어놓아 현대체육과학기술에 대한 학습열의를 경쟁적으로 높일수 있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종목별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수준이 부단히 높아졌고 지난해에만도 년간 선수후비양성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교수훈련지도의 과학화실현은 선수후비양성단위들앞에 나선 중요한 당정책적과제이다. 전경철동무처럼 일군들이 실정에 맞게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뿐아니라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갈 때 당정책의 생활력은 높이 발휘될것이며 체육강국을 떠메고나갈 기둥감들이 더욱 억세게 자라날것이다.

사상의 위력으로 더 많은 금메달을

사상전의 기치를 높이 드는것, 바로 여기에 체육경기에서 승리하는 첫째가는 열쇠가 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강령적인 유훈은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감독 장경옥동무가 심장깊이 간직한 좌우명이다.

감독은 선수의 기술지도일군이기 전에 사상정신적교양자가 되여야 한다.

이런 드팀없는 관점을 가지고 장경옥동무는 훈련의 시작점과 쉴참이면 어버이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학습 등을 통한 정치사업을 실감있게 진행하여 선수들의 심장에 불을 달고 새 기준, 새 기록창조에로 고무추동하였다. 그가 사상교양사업에 리용하는 자료들의 내용은 매우 폭넓고 다양하다. 퇴근길을 가다가도 수도의 곳곳에 나붙은 직관물들에서 생동한 자료들을 보면 즉시에 수집하여 선수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리용하는것이 이제는 장경옥동무의 습벽으로 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가 만든 5대교양자료집들이 선수들의 휴게실마다에 갖추어져 그들의 훈련과 생활의 모든 계기와 공정들이 교양과정으로 일관되게 되였다.

감독의 드세찬 사상공세는 선수들속에서 정신적앙양의 불길을 활활 지펴올렸다.

강도높은 훈련의 어려운 고비때마다 선수들모두가 《적기가》를 비롯한 혁명가요들을 합창하며 억세게 일떠섰고 주장이 《주체조선의 체육정신은》 하고 선창하면 다같이 《달려도 세계의 앞장에서 달리는 정신》, 《이겨도 통쾌하게 이기는 정신》,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정신》이라고 화답하며 새로운 훈련기록을 긍지높이 세기군 하였다.

이렇게 사상정신적으로 더욱 키높이 성장하고 그와 더불어 육체기술전술적능력을 보다 튼튼히 갖춘 우리 녀자태권도선수들은 여러차례의 태권도세계선수권대회와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들에서 련이어 태권도모국의 금메달열풍을 안아왔다. 올해에도 경쟁열의를 끊임없이 분출시키며 지난 시기에 비해 중량풀들기를 배로 초과수행하고 육체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룩하였다.

선수들의 비상히 앙양된 열의에 맞게 사색과 탐구를 심화시켜 다양한 기술수법 700여가지, 부류별, 형태별특기기술수법 60여가지 등을 창안도입함으로써 훈련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는 장경옥동무.

그의 투쟁기풍은 감독들부터가 사상전, 투지전의 기수가 되고 선수대중속에서 사상전, 투지전의 불길을 활활 지펴올려야 그들을 쇠소리나는 사상의 강자, 우리 식 경기전법의 소유자, 승리자로 준비시킬수 있으며 체육강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세계적인 체육강자들로 키울수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세계를 향해 돌진하는 쟁쟁한 실력가

조선체육대학 강좌장 왕진혁동무는 30대의 체육심리교육자이다. 당의 은정속에 조선체육대학을 졸업한 후 박사원기간에 학위를 수여받은 그는 30살에 강좌장이 되였다.

그가 세계와의 도전에 대담하게 뛰여든것은 20대였다. 왕진혁동무는 해당 분야의 세계적인 발전실태를 파악한데 기초하여 우리 선수들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체육심리조절방법, 교육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탐구의 길에 청춘의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하여 몇해어간에 8개의 새 과목을 개척하고 10여종의 참고서들을 집필하였으며 수많은 다매체편집물, 심리측정실험기재, 프로그람들을 완성하는 등 놀라운 실적을 세기였다.

지난해 총정의 70일전투와 200일전투기간 왕진혁동무는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할데 대한 당정책을 틀어쥐고 강좌교원들과 힘을 합쳐 해당 분야의 세계적추세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실태, 이미 이룩된 연구성과들과 미해명문제 등과 관련한 자료들로 전공과목교수내용을 새롭게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왕진혁동무는 학생들이 명백한 연구종자를 쥐고 현실에 들어가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실천실기능력을 알심있게 키워갈수 있도록 실습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하여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기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여러 체육단들에서 다양한 종목의 국내경기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며 졸업론문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고 최우등생학급의 영예도 지니게 되였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선수, 감독들이 훌륭한 국제경기성과들을 이룩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한 왕진혁동무의 목표는 확고하다.

하루빨리 나라의 체육심리학분야를 세계를 압도하는 수준에 끌어올리고 세계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전도유망한 체육심리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것이다.

높은 실력이 안받침된 고결한 애국충정, 청춘의 심장에 끓어넘치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을 최대로 분출시키며 왕진혁동무는 세계를 향해 더욱 과감히 돌진하고있다.

과학기술로 새겨가는 보답의 자욱

체육연구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사 김승현동무는 사람들로부터 보기 드문 정열가로 불리우고있다.

그도그럴것이 나라의 체육과학발전을 위한 사색과 탐구에 온넋을 바쳐가는 김승현동무이다. 그에게는 연구사업에 열중하느라 한밤을 지새울 때가 많다.

그런 비상한 열정으로 지난 기간 9건의 국가연구과제를 비롯한 주요연구과제들을 완성하여 해양체육종목의 과학화수준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시대가 요구하는 높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 수년간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여러 학부들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분야의 경제과학지식까지 습득해나가던 정열은 50대를 눈앞에 둔 오늘에도 변함이 없다.

그 불같은 탐구정신은 지난해 12월부터 벌어진 수중모방훈련장을 꾸리기 위한 전투때에도 남김없이 발휘되였다.

김승현동무는 국가과학원 연구사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치고 뭇별들도 조으는 한밤도 현장에서 지새우며 80여차례의 실험을 진행하면서 끝끝내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초음파류속계와 커누수중모방훈련장류속측정체계를 완성하여 겨울철에도 선수들의 과학적인 전문육체훈련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수중모방훈련장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꾸리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새로 꾸려진 수중모방훈련장이 교수훈련에 도입된 결과 선수들의 전문육체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고 그것은 지난 4월에 진행된 태양절경축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에서의 높은 경기기록으로 이어졌다.

올해에도 커누교수훈련지원체계를 도입하여 훈련의 효과성을 더욱 높여나가고있는 김승현동무는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당의 품속에서 재능의 나래를 활짝 펼치며 성장한 복받은 과학자의 한사람입니다. 그 사랑, 그 믿음에 다 보답하자면 할 일이 너무도 많고 그래서 더욱 귀중한것이 시간입니다.》

그에게는 10여년전에 써놓은 박사론문초고가 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도 조국의 부강번영속에 빛난다는 철리를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고있는 그는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실현을 위해 오늘도 지칠줄 모르는 두뇌전, 실력전으로 보답의 자욱을 아름답게 새겨가고있다.

* *

비록 일터와 직무는 서로 달라도 우리의 주인공들은 당중앙과 심장의 박동을 같이하며 주체체육의 비약적발전을 위한 돌파구를 앞장에서 열어가는 총돌격전의 기수, 참된 애국자들이다.

이들처럼 체육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체육인들이 당정책은 곧 과학이며 승리이라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오늘의 만리마속도창조대전에서 열화같은 애국충정과 자강력제일주의, 과학기술의 위력을 총폭발시켜나갈 때 조선의 금메달은 더욱 자랑차게 솟구쳐오를것이며 체육강국으로 빛날 우리 조국의 래일은 더욱 앞당겨질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 전승의 메아리－전시가요명곡들 ‖

《전호속의 나의 노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우리의 인민군대와 인민들은 숭고한 애국주의와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에게 정치군사적패배를 안기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하였습니다.》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한 전시가요들가운데는 《전호속의 나의 노래》도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1211고지를 타고앉으려고 미제는 우박처럼 폭탄을 퍼붓고 많은 병력을 들이밀며 공격하였지만 참패만을 거듭하였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닌 인민군용사들과 《무기만능론》을 떠들며 달려드는 적들과의 대결에서 삶을 지키고 빛내인것은 평범한 우리 병사들이였으며 죽음의 공포속에 허덕인것은 적들이였다.

력사의 진실을 오늘도 전시가요 《전호속의 나의 노래》는 숭고하고도 풍만하며 철학적깊이가 있는 음악형상으로 밝히고있다.

당시 가혹처절한 1211고지방위전투에서 우리 병사들이 발휘하고있는 무비의 용감성과 희생성에 대한 이야기에서 충격을 받은 종군창작가들이 고지에 올랐을 때 눈앞에 펼쳐진 생활은 참으로 뜻밖이였다.

전투가 끝난 고지에서 병사들은 그 어떤 애수나 비관을 모르며 해방후 5년세월 누려온 꿈만 같은 행복에 대해 저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고 어떤 병사들은 가슴에 품은 훈장과 메달을 꺼내 정히 닦는것이였다.

고지에 펼쳐진 광경은 창작가들의 창작적열정을 불러일으키였다. 하여 노래 《전호속의 나의 노래》가 창작되였다.

노래는 고지에서 병사들에 의하여 제일먼저 울리게 되였다.

언제인가 한 전쟁로병은 1211고지방위전투때 병사들은 이 노래를 즐겨불렀다고, 어쩌다 전방에 고요가 깃들 때 노래 《전호속의 나의 노래》를 부르면 이 고지, 저 고지에서 아군병사들이 화답하여 전연의 산발이 들썩하였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였다.

조국과 고향을 지켜 공세우고 돌아오라는 당부를 하던 혈육들의 정든 모습을 그려보는 병사들의 가슴속에 불꽃처럼 끓어번진것은 바로 사랑이였다.

《빛난 훈장 가슴팍에 내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부모처자 두팔로써 안기리》

승리를 굳게 믿는 병사들의 가슴속에는 꺼질줄 모르는 사랑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고 그들이 펼쳐가는 위훈은 조국땅 방방곡곡에 전해지지 않았던가.

그러나 멸적의 총탄과 함께 승리의 노래포성이 터져나오는 1211고지를 《할정골》, 《상심령》이라고 부른 미제침략자들은 한시바삐 도망칠 궁리에 몰두하며 조선에 내리는 이 비 좋곤 차기도 하다라는 넉두리같은 노래를 주절대였다.

승리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병사들처럼 장의하고 아름다운 인간들은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 《전호속의 나의 노래》와 같은 노래는 다른 나라에서는 나오지 못한다고 하시며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오늘도 전화의 용사들의 후손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조국의 방선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가고있다.

총창은 병사들과 인민들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된 노래는 오늘도 천리전선과 후방으로 오고가는 사람과 사람의 정에 넘친 《편지》가 되어 끝없이 울려퍼지고있다.

본사기자 차수

심장으로 남긴 축원의 글발

외교단사업총국 총국장이였던 심국룡동무

우리의 생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끝나는가?

그 물음에 대답을 주는 하나의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지난 6월말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한 일군이 가족들과 동지들, 의사들에게 둘러싸인채 침상에 누워있었다. 불치의 병으로 이미 림종에 이른 그는 혈육들의 애타는 부름소리마저도 가려듣지 못하는듯 하였다. 그때 어디선가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그제서야 환자는 힘겹게 눈을 떴다.

잠시후 그의 입에서는 뜻밖에도 낮으나 또박또박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한평생…타신 기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오늘도 …기차이다.》

이어 그는 마지막힘을 짜그러모아 흰종이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삼가 축원하는 글발을 써나갔다.

한자를 쓰고는 멈추고 또 한자를 쓰고는 멈추고…

이렇게 열여덟글자를 마지막까지 다 쓰고서야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외교단사업총국 총국장이였던 심국룡동무는 이렇게 우리의 곁을 떠났다.

61살, 아직 한창 일할 나이인 그가 하고싶은 이야기, 남기고싶은 말인들 얼마나 많고많았으랴. 그러나 그 모든것을 그는 이 열여덟글자에 다 담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수령이 안겨준 정치적생명을 지닌것은 혁명전사의 가장 큰 영예이며 당과 수령의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사업실적으로 보답하는 여기에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는 참된 길이 있다.》

심국룡동무의 집에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모시고 찍은 영광의 기념사진들이 정중히 모셔져있다. 그중에는 그가 어린시절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도 있고 외국방문의 길에 오르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몸가까이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도 있다.

그는 이렇게 성장하였고 그의 생은 이렇게 흘러왔다. 그는 노래를 무척 사랑하였다. 그가운데서도 노래 《매혹과 흠모》를 주제가라고 할만큼 즐겨불렀다.

매혹과 흠모! 그것은 심국룡동무의 심장의 고백이였다.

당의 크나큰 믿음속에 오래동안 외교부문에서 사업해온 그는 온 세계가 우러르며 따르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천출위인상을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깊이 절감하였다.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을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어느 한시도 두고온 조국과 인민을 잊지 못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가까이에서 뵈올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으랴. 그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심장으로 웨쳤다.

우리 장군님 같으신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도 금수산태양궁전주변과 수목원에서는 그의 이런 매혹과 흠모가 뿌리가 되고 잎새가 된 수만그루의 진귀한 식물들이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다.

외교단사업총국의 혁명사적물보존실과 연혁소개실에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발자취가 새겨져있는 대동강외교단회관에도 심국룡동무의 지성과 헌신적인 노력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매일 아침마다 만수대언덕에 올라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리고 출근길을 이어갔다는 한가지 사실을 놓고도 그의 가슴속에 차넘치던 충정의 마음, 불타는 맹세를 읽을수 있다.

그는 보답의 생을 살고싶어했다. 외교단사업총국의 책임일군인 그가 언제 출근하고 퇴근하는지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런 심국룡동무였기에 려명거리건설전투때에도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총국의 종업원들은 늘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깊은 밤, 이른새벽 가림없이 건설장을 찾군하던 그의 모습을 오늘도 잊지 못해하고있다.

그는 몇해전에 벌써 자기의 병에 대해, 얼마 남지 않은 생에 대해 알고있었다고 한다. 의사들이 치료를 권고했지만 그는 한시도 일터와 전투장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허리에는 항상 배띠가 채워져있었다.

언제인가 려명거리건설장을 찾았던 안해 김복숙동무는 천막안에 홀로 앉아있는 남편을 보게 되였다. 며칠사이에 퍽 축간것 같은 남편의 모습을 아프게 바라보던 김복숙동무는 그만 흠칫 놀랐다. 한줌이나 되는 진정제주사약과 주사기가 그의 망막을 찔렀다. 불시에 두눈에 눈물이 솟구쳤다.

얼마후 그들사이에는 이런 말이 오갔다.

《여보, 어서 병원에 가자요.》

《그래, 하지만 지금은 안되오. 려명거리가 완공된 다음에 가기요. 그때까지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그는 그 맹세를 지켰다. 당에 대한 불같은 충정,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그의 생을 억척스레 버티여준 피줄기였고 버팀목이였다.

심국룡동무가 외교단사업총국 총국장으로 사업한 기간은 몇해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동지들의 추억은 뜨겁고 아름다왔다.

《그는 책임성높고 일욕심많은 일군이였습니다. 그토록 만류하였지만 침상에서도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입원기간에도 꼭꼭 자기의 당생활에 대해 보고하던 그의 목소리를 잊을것 같지 못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이 당보에 실리면 그는 그 특보를 자기가 직접 맡아하였습니다.》

…

심국룡동무는 이런 일군, 이런 당원이였다. 심국룡동무의 생의 순간순간마다에는 그가 심장으로 남긴 그 글발이 빛나고있었다. 우리는 그 글발에서 그가 생의 마지막순간에 그처럼 하고싶었던 이야기를 다 들을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삼가 축원합니다.

우리 인민모두가 자나깨나 아뢰는 간절한 마음, 영원한 충정을 맹세다지며 올리는 신념의 목소리이다. 우리모두의 인생의 갈피갈피 아니 인생의 전부가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을 축원하는 불타는 소원으로 엮어진것이다. 그것으로 하여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끝도 그처럼 깨끗하고 아름답고 숭고한것이 아닌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일편단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심국룡동무에게 대를 두고 길이 전할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본사기자 리경일

리주억전쟁로병의 가정을 찾아 친혈육의 정을 나누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재료공학부의 청년대학생들

본사기자 찍음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몽골 대통령을 만났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11일 몽골 대통령을 만났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할트마긴 바뜨톨가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홍규대사가 정중히 전하였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 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지난 시기 여러차례 조선을 방문하고 또한 몽골을 방문한 조선의 고위급대표단들을 만나는 과정에 조선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국립교향악단음악회

국가과학원에서 진행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이 인민경제 주요단위들에 나가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는 속에 국립교향악단음악회가 12일부터 14일까지 국가과학원에서 진행되였다.

국립교향악단의 예술인들은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 단번성공의 특대사변을 안아온 국방과학전사들의 투쟁정신, 투쟁본때로 과학기술강국건설의 주타격방향에서 첨단돌파전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국가과학원 종업원들을 위해 특색있는 음악회를 펼치였다.

관현악 《조국찬가》로 시작된 음악회에는 바이올린독주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관현악 《7.27행진곡》, 피치카토를 위한 현악합주 《이 강산 하도 좋아》,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남성독창 《정일봉의 우뢰소리》,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천재적예지와 출중한 령도력을 지니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식경제시대의 선도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관현악 《김정은장군께 영광을》이 무대에 울려퍼지자 장내는 백두의 담력과 배짱, 사생결단의 애국헌신으로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동방불패의 핵강국, 세계적인 로케트맹주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워주시고 태양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와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굽이쳤다.

총정의 70일전투, 200일전투에서 자랑찬 승리를 쟁취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과학기술강국의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두뇌전, 첨단돌파전에 돌입하여 경이적인 성과들을 련이어 창조해나가고있는 이곳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신심과 열정을 안겨준 관현악 《우리는 만리마기수》 등의 종목들로 공연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과학자, 기술자들을 혁명의 핵심부대, 핵심력량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순간도 잊지 않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자력자강의 만리마대고조진군에서 혁명열, 창조열, 애국열을 총폭발시켜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었다.

메히꼬로동당대표단 귀국

리까르도 깐뚜 가르씨아 전국조정위원회 조정자를 단장으로 하는 메히꼬로동당대표단이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리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선천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김승국동무

순결한 량심으로 지키는 의리

선천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로동자 김승국동무는 절세위인들의 존함을 모신 불멸의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데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도 스스로 찾아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존대하는것은 총대로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의 전통이며 우리 사회의 고상한 정신도덕적기풍입니다.》

맡겨진 직업적의무를 다하면서 원군사업도 하고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도 찾아간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김승국동무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의 자욱자욱에 자신의 마음을 따라세우며 인민군군인들과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위한 길을 쉬임없이 걷고있다.

한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강추위가 한창이던 어느날 초소의 병사들에게 여러가지 원호물자를 보내준 김승국동무는 또다시 길을 떠났다.

읍 95인민반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을 찾아가야 하기때문이였다. 어머니와 안해도 도와나섰다. 이렇게 되여 그들은 산나물과 보약재, 내의 등을 성의껏 마련하였다.

다음날 김승국동무는 전쟁로병의 가정을 방문하였다. 친자식의 심정으로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가와 건강상태를 물어보는 김승국동무를 바라보며 지형룡전쟁로병의 가족들은 뜨거운것을 삼키였다.

이뿐이 아니다.

김승국동무는 읍 135인민반에서 살고있는 김천광특류영예군인, 읍 209인민반의 허종환전쟁로병을 비롯한 여러명의 특류영예군인과 전쟁로병들의 사업과 생활을 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있다.

어이하여 그가 불멸의 꽃을 피우는 직업적의무를 다하면서 인민군군인들과 전쟁로병, 영예군인들을 위해 그렇듯 헌신의 길을 걷고 또 걷는것인가.

그것은 량심으로 걷는 길이였다. 그 량심을 버리면 당의 전사로서의 의리를 다할수 없기에 김승국동무는 오늘도 초소의 병사들과 전쟁로병, 특류영예군인들을 위한 길을 쉬임없이 걷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김창길

백두산밀영지구에 김정일화가 활짝 피여났다

이 땅의 수천만 아들딸들이 신념도 마음도 발걸음도 하나가 되여 끝없이 찾고 또 찾는 백두산!

천만의 심장마다에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억세게 벼려주는 혁명의 성산의 백두산밀영지구에 또다시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활짝 피여났다.

백두의 푸른 이끼에 포근히 감싸안겨 활짝 피여난 김정일화의 붉고붉은 꽃잎과 억센 줄기마다에, 진함없는 꽃향기에 언제나 그 어디서나 백두산을 안고 살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그대로 비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우리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실로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에 처음으로 피여난 때로부터 어언 수십년세월이 흘렀다.

그 나날 사시장철 흐르는 소백수의 맑은 물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해마다 아름답게 피여났다.

뜻깊은 올해에도 천첩만첩으로 활짝 피여난 김정일화를 바라볼수록 가슴속에 고패치는 뜨거운 격정이 있다.

《이렇게 해마다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 향한 답사길우에 불멸의 꽃을 피워놓을 때면 수십년전 고향집뜨락에 피여난 김정일화를 보시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숭엄히 어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지군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량강도김일성화김정일화위원회 일군인 김경복동무의 이야기는 어버이수령님을 네번째로 백두산밀영고향집에 모시였던 영광의 그날로 우리를 이끌어갔다.

주체82(1993)년 8월 19일, 항일전의 하많은 추억을 안으시고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또다시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고향집뜨락에 피여난 김정일화를 몸소 보아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강사로부터 불멸의 꽃 김정일화가 백두대지에 뿌리내리게 된 사연도 들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경복동무와 그의 형제들의 소행을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그들이 백두산밀영지구에 김정일화를 피운것만 보아도 김정일동지를 받드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잘 알수 있다고 정을 담아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김정일화에 대한 재배기술을 완성하고 보급을 잘하여 온 세상 그 어디에나 김정일화가 활짝 피여나게 하여야 한다고, 나는 김정일동지를 따르고 받드는 백두산밀영 동무들의 마음처럼 이 꽃이 계속 활짝 피여있기를 바란다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붉은 꽃잎을 한껏 펼친 김정일화를 바라보느라니 혁명의 성지에 불멸의 꽃을 더욱 활짝 피우기 위해 이들이 끊임없이 이어온 헌신의 그 나날들이 우리 가슴에 뜨겁게 새겨졌다.

6월 하순까지 우박이 쏟아지고 8월에도 몇차례씩 서리가 내린다는 이곳, 낮과 밤의 온도차이가 심한 백두대지에서 그것도 야외조건에서 불멸의 꽃을 피운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불멸의 꽃재배에 필요한 수많은 참고서들의 자료와 자신들이 쌓은 재배경험도 분석종합하면서 밀영지구에서의 새로운 꽃재배조건을 마련하던 나날이며 불리한 환경속에서도 김정일화를 활짝 피울수 있는 방법을 완성하느라 무수한 밤을 지새우던 이야기…

삼지연군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지배인 김경남동무의 이야기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지난 6월 어느날 깊은 밤 갑자기 밀림의 고요를 깨치며 세찬 폭우가 쏟아졌다. 정금녀, 현순영, 김옥주, 로은심동무들을 비롯한 온실종업원들은 약속이나 한듯 불멸의 꽃이 자라는 곳으로 달려나왔다. 그리고는 비바람에 꽃잎이 상할세라, 한점의 흙탕물이라도 튕길세라 자신들이 입었던 비옷으로 불멸의 꽃들을 정히 감싸안고 새날을 맞이했다.

이들이 이렇게 지켜내고 키워낸 꽃송이들은 정일봉의 노을빛처럼 더더욱 붉은 빛을 뿌렸다.

김경복동무와 그의 안해 염이순동무는 자기들이 데려다 키우고있는 부모없는 10여명의 아이들과 함께 불멸의 꽃들이 꽃망울을 터칠 때면 어김없이 백두산밀영고향집을 찾군 한다고 한다.

이제는 그들이 어엿한 김정일화재배공들로 자라나 백두대지에 불멸의 꽃을 활짝 피워가고있다.

백두산밀영지구에 피여나는 김정일화!

정녕 김경복동무와 그의 형제만이 아닌 온 나라 천만군민이 안아피운 신념과 충정의 꽃이다.

언제인가 백두산에 올랐던 일본의 원예학자 카모 모토테루는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과 기상에 격동을 금치 못하며 이렇게 경탄했다고 한다.

《백두산일대야말로 김정일화가 자라날수 있는 더없이 적합한 곳입니다. 그리고보면 김정일화는 백두산을 위해 태여난것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끝없이 찾고찾는 답사자들은 혁명의 성지에 활짝 피여난 김정일화를 보며 가슴속에 더더욱 차넘치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을 금치 못한다. 그와 더불어 심장으로 다지는 맹세는 또 얼마나 고결한것인가.

김정일화의 붉은 꽃잎과도 같이 열렬하고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푸른 잎새와도 같이 순결한 량심과 억센 기상을 안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최후승리의 그날을 향하여 폭풍쳐 달려가리라.

천만군민의 이 불변의 신념을 더욱 벼려주며, 선군조선의 밝은 앞날을 축복하며 불멸의 꽃 김정일화는 백두대지우에 끝없이 만발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성민

태양조선의 천하제일경－《백두산8경》

백두련봉의 웅장한 자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에 올라가보니 사나운 눈보라속에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의 웅장한 자태와 기상은 볼수록 장관이였습니다.》

백두련봉의 웅장한 자태는 우리 민족이 대대손손 전해갈 태양조선의 천하제일경－《백두산8경》중의 하나이다.

조선의 근본지맥인 백두대산줄기가 시작되는 곳이며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급한 절벽을 이루고 병풍처럼 둘러싼 백두련봉의 기이한 자연조화는 그 모양 또한 형형색색인것으로 하여 백두산의 만물상으로 불리우고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백두산은 동북아시아의 지세를 거머쥐고 우리 나라 북변의 중심, 무한대한 자연속에 웅장하게 솟아있다.

조종의 산, 혁명의 성산 백두산의 산봉우리들은 보면볼수록 하나같이 위엄있고 그 생김새가 기묘하여 사람들에게 다양한 감정정서를 안겨주고있다.

보천보를 지나 삼지연을 가까이하면서 중홍동판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면 저 멀리 하늘높이에 장군봉, 향도봉, 해발봉, 단결봉의 네개의 봉우리가 끔직끔직하게 솟아있어 산세가 무게가 있으면서도 거연해보인다.

대홍단의 백두삼천리벌에서 바라보면 장군봉, 향도봉, 해발봉, 백암봉이 푸른 하늘을 떠이고 솟아있어 백두산의 전반적 형태가 웅장하면서도 장엄해보이며 산마루의 기복이 없는듯하다.

그렇지만 삼지연부근에서 백두산을 바라보면 장군봉, 향도봉, 해발봉이 나란히 솟은 장엄한 모습이 뚜렷이 안겨와 커다란 감흥을 받아안게 된다.

또한 중홍동판과 백두삼천리벌에서 볼 때보다 산릉성이와 계곡들이 가파롭고 단조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백두산에 올라 련봉들을 둘러보면 해발고가 2 700m이상인 장군봉, 향도봉, 해발봉을 주봉으로 한 10여개의 기본봉우리와 함께 경관학적으로 볼 때 상대높이가 20m이상 되는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수많이 솟아있다.

백두산의 최고봉인 장군봉과 함께 14개의 봉우리가, 향도봉과 해발봉과 함께 각각 15개의 봉우리가 장군을 옹위하는 근위병들마냥 솟아있다.

장군봉에서 천지쪽으로 뻗어내린 줄기를 타고 솟아있는 비루봉과 함께 40개의 높고낮은 봉우리들이 만물상을 이루고있고 장군봉의 북서쪽 맞은편에 있는 차일봉주위에는 11개, 흰바위로 이루어졌다는 백암봉과 함께 33개, 흰구름이 자주 진다는 백운봉과 함께 26개, 푸른 바위절벽으로 이루어진 청석봉주위에는 10개, 락원봉과 함께 20개의 봉우리들이 병사가 비껴든 총검처럼 장쾌하게 솟아있다.

그리고 백두산의 고유한 제철새인 고산제비가 많이 모여든다는 제비봉주위에 3개, 단결봉과 함께 5개, 쌍무지개가 자주 비낀다는 쌍무지개봉주위에는 12개의 봉우리가 솟아있다.

이 봉우리들은 60°이상의 급한 절벽을 이루면서 천지를 병풍처럼 둘러싸고있는데 그 자태는 볼수록 장엄하고 웅장하며 기묘하기 그지없다.

특히 비루봉일대에는 마치 천지를 지키며 알밤을 고이고 앉아있는것 같은 곰바위가 있고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이우고 다듬어져 생겨난 촉대바위, 사자바위를 비롯하여 형형색색의 바위들이 솟아있다.

천지를 둘러싸고있는 수많은 봉우리들과 바위들은 성새를 방불케 한다.

장군봉, 향도봉, 해발봉을 주봉으로 하는 216개의 크고작은 봉우리들이 치솟아있는 백두련봉의 웅장한 자태는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과 그 불가항력적인 위력으로 세기의 령마루에 우뚝 올라선 선군조선의 위용을 온 누리에 힘있게 과시하고있는듯 하다.

이처럼 백두산은 절경마다에 대대로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며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만을 떨쳐나가는 우리 인민의 존엄과 긍지를 비껴안고있어 더욱 자랑높은 천하제일명산이다.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 대장 박우창

해양체육월간사업에 적극 참가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을 발전시키는것은 사람들의 체력을 단련하고 나라의 위력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나라에서 7월과 8월은 해양체육월간이다.

우리 인민의 체력증진에 언제나 마음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수영은 사람들의 건강과 체력단련에 좋은 운동이므로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학교들에서 모든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수영하는 법을 배워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수영을 비롯한 해양체육은 사람들의 몸을 튼튼하게 단련시켜주고 강의한 의지와 용감성을 키워주며 혁명적기백을 더해준다.

건장한 체력과 강의한 의지, 용감성은 청춘의 기백과 활력의 원천이며 창조적로동과 영웅적투쟁의 담보이다.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한 전민총돌격전에서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 수풍발전소만 놓고보아도 이곳에서는 현대적인 수영장을 꾸려놓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수영을 하면서 튼튼히 단련한 몸과 마음으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해양국인 우리 나라에서 누구나 수영을 비롯한 해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여야 바다와 강의 정복자로, 건장한 체력과 굳센 의지의 소유자로 될수 있으며 더없이 귀중한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튼튼히 보위하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폭풍노도쳐 나아가는 오늘의 총진군에서 위훈떨칠수 있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7, 8월해양체육월간에 온 나라가 해양체육열기로 더욱 들끓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해양체육월간사업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어디서나 해양체육분위기로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수영을 널리 장려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 수영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수영지식을 깊이 체득시키고 헤염기초동작부터 알기 쉽게 가르쳐줄수 있게 과정안을 잘 만든데 기초하여 수영수업을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실속있게 진행해나가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여러가지 헤염방법의 원리와 기초기술동작들을 잘 익힐수 있게 요구성을 높이며 모두가 어떤 조건에서도 능숙하게 수영을 할수 있는 능력과 강의한 의지를 키워나가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각지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7, 8월해양체육월간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어 모든 근로자들이 해양체육활동에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체육월간사업의 성과여부도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일군들은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해양체육월간사업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자신부터가 대중의 앞장에 서며 해양체육활동조건을 잘 보장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모두다 해양국의 인민답게 드높은 열의를 안고 해양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함으로써 로동과 국방에 더욱 튼튼히 준비하고 청춘의 기백과 활력에 넘쳐 올해의 전민총돌격전에서 새로운 기적과 혁신의 창조자, 만리마선구자로 위훈떨치자.

본사기자 강효심

세계 여러 나라의 유적들

이란의 페르세폴리스

페르세폴리스는 페르샤의 제3대왕 다리우스(다레이오스)1세의 명령에 따라 B.C.522년경에 건설되였으며 그때 당시 파사르가다에, 에크바타나, 바빌론, 수사 다음으로 제5의 도시로 되였다.

동서로 약 300m, 남북으로 약 455m에 달하는 대기단우에 건설된 왕궁의 여기저기에는 왕의 위용을 과시하는 동물조각들과 부각상들이 있다. 이 왕궁은 10여동의 건물로 구성되여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물은 페르세폴리스의 정전인 아파다나이다.

아파다나는 왕이 공물을 바치는 사절단을 접견하는 장소로 리용하던 궁전으로서 대기단우에 있는 아파다나 기단의 옆면에는 사자를 비롯한 동물들과 공물을 들고있는 여러 나라의 사절단들이 금시 움직이기 시작할듯이 생동한 모습으로 부각되여있다.

에스빠냐의 꼬르도바력사지구

에스빠냐의 남부에 있는 꼬르도바는 먼 옛날 이슬람교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꼬르도바력사지구에서 대표적인 옛 건축물은 이슬람교의 사원인 메스끼따대사원인데 이것은 3차례의 확장공사를 거친것이다. 이 대사원은 후기우마이야왕조를 세운 아브드 알라흐만1세의 명령에 따라 780년에 착공된 건물인데 16세기에 이르러 건물의 일부는 그리스도교의 성당으로 개축되였다. 그리하여 메스끼따대사원에는 2개의 종교건축물이 섞여져있게 되였다. 개축할 때 대부분의 귀중한 이슬람교양식건축물이 파괴되였으나 여러개의 원형기둥들을 2중아치형식으로 련결한 《원형기둥의 숲》은 그 훌륭함으로 하여 후세에 이름떨치게 되였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우리 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저는 평범한 로동자의 안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저의 남편을 위해 바친 고마운 사람들의 진정을 전하고싶어서입니다.

지난해 남편은 뜻밖의 사고로 오른팔을 절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철도성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사지외과에서는 남편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팔을 절단하지 않고 치료하기 위한 전투에 달라붙었습니다.

저의 눈앞에는 지금도 아침출근때마다 남편을 찾아와 힘과 용기를 주던 과장선생님과 남편이 심한 고열과 아픔으로 잠 못 들 때 곁을 떠나지 않고 돌보아주던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강좌장 오정현선생님을 비롯한 의료일군들의 모습이 삼삼히 떠오릅니다.

오정현선생님은 새로운 수술방법에 대한 수십차례의 콤퓨터모의실험과 연구를 계속하며 한밤을 지새고 새날을 맞은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술이 성과적으로 진행된 다음에도 남편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이모저모로 애쓰던 의료일군들의 수고를 어떻게 한두마디 말로 다 전할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 생명을 위해 하늘에 비행기가 날고 바다에 군함이 뜨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만이 이런 인간사랑의 기적들이 태어날수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이 치료를 받는 전기간 매끼 식탁에 오르는 영양가높은 음식들을 보며 지금껏 우리 인민들이 알게모르게 받아안은 당의 은정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다시한번 깊이 느끼게 되였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개천시 강철동 65인민반 김정실

우수한 민족문화유산을 더욱 빛내여나가자

민족음식발전을 위해 바쳐가는 마음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은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창광음식점거리, 바로 이 사랑의 거리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넘쳐흐르고있다.

최근에는 수십가지나 되는 미꾸라지료리, 자라료리가 새로 생겨나 사람들의 기쁨을 더해주고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새 료리들을 들고나서 손님들은 한결같이 미꾸라지료리, 자라료리가 이렇게 맛있는줄은 여기 와서 알게 되였다고, 정말 이곳 료리사들의 수준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새 료리들이 인민들의 초점을 받기까지에는 미꾸라지료리를 비롯한 민족음식을 장려할데 대한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창광봉사관리국 일군들과 료리사들이 바쳐온 꾸준한 사색과 불타는 열정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음식을 적극 장려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부국장 박춘근동무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

언제인가 추어탕을 비롯한 미꾸라지료리를 많이 만들고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아안게 된 창광봉사관리국의 일군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당시에는 미꾸라지료리에 대한 과학도 부족한 상태였고 이미전부터 봉사하던 추어탕도 그 질이 높은 수준이라고 할수 없었다. 민족음식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보다 큰 기쁨을 안겨주려는 당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우자면 결정적인 대책이 필요하였다.

이날 일군협의회에서는 원자재보장문제, 료리사선발문제, 료리가공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가 진행되였다. 박경호, 조성심동무를 비롯한 책임일군들은 미꾸라지료리를 높은 수준에서 만들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이 사업을 맡아할 력량이 조직되고 문헌조사와 자료작업이 진행되였다.

김금옥동무는 료리사들과 함께 해당 단위들을 찾아다니며 미꾸라지료리를 만드는 방법과 경험들을 하나하나 실속있게 배워나갔다.

이런 충분한 준비끝에 관리국에서는 순두부국집의 료리사들사이에 누가 미꾸라지료리를 더 잘 만들어 내놓는가 하는 경쟁을 붙였다.

일군들은 4명의 료리사들이 매일 똑같은 2가지 료리를 만들게 하고 그가운데서 제일 잘된 료리를 선정한 다음 그 경험을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 료리사들이 미꾸라지손질과 가공을 재빨리 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되였고 추어탕을 비롯한 미꾸라지료리의 맛을 살리기 위한 사색과 연구가 심화되면서 차츰 그 질이 개선되여나갔다.

순두부국집에서는 이렇게 품을 들여 미꾸라지고추장, 파일즙을 친 미꾸라지완자찜, 미꾸라지빵가루튀기를 비롯한 20가지 료리를 완성한 후 손님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갔다.

사람들은 미꾸라지가 그 약효와 영양가가 높아 민물인삼이라고 부른다는것은 알고있었지만 이렇게 맛이 좋은 료리감인줄은 몰랐다고 감탄을 금치 못해하였다.

순두부국집에서 만난 주방장 유금순동무는 지금은 손님들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미꾸라지료리를 척척 만들어낼 정도로 료리사들의 료리기술이 높아졌다고 우리에게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이들은 올해 4월에 진행된 제22차 태양절료리축전 미꾸라지료리전시회에 우수한 료리들을 출품하여 최우수상을 수여받았다.

이어 우리는 자라료리를 잘하기로 소문이 난 사계절식당을 찾았다.

식당책임자인 공훈료리사 김금선동무는 이번에 자라료리를 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우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자라료리를 먹이시려고 얼마나 마음쓰시였는가를 더 잘 알게 되였다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9(2010)년 1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자라료리는 맛있고 건강에 좋은 보양제음식이다》**를 펼쳐보이였다.

로작에는 자라료리방법과 자라료리기술을 널리 보급할데 대한 문제, 자라양식과 관련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었다.

귀한 보약재로 소문난 자라로 료리를 만들어 봉사하면 우리 인민들이 좋아할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에게 자라료리를 먹이려고 마음을 많이 써왔다고,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허리띠를 조이면서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인민들에게 좋은것이 하나라도 더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작의 구절구절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젖어들게 하였다.

자라료리봉사를 잘하는것을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관철사업으로 심장깊이 간직한 관리국의 일군들과 식당의 료리사들은 조선료리협회 중앙위원회와 옥류관에서의 자료작업과 실습과정에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

이들의 꾸준한 노력은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자라회, 자라탕, 통자라찜, 자라튀기, 자라죽을 비롯한 여러가지 료리방법을 완성하여 몇달전부터 봉사활동을 벌렸던것이다.

자라료리들을 들면서 기뻐하는 손님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당에서 가르쳐준대로만 하면 인민들에게 더 큰 행복이 차례지게 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되였다는 김금선동무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우리는 확신하였다.

당정책관철을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과 열정속에 나날이 늘어나는 특색있는 새 료리들과 더불어 사랑의 거리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더욱더 차넘치게 되리라는것을.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고유한 글자

《훈민정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민족이 총명하고 우수한 민족이라는것은 〈훈민정음〉을 창제한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고유한 민족글자의 창제는 당시 우리 인민의 절실한 요구로 제기되였다. 우리 선조들은 고대시기에는 신지글자를 만들어썼고 그후에는 리두문자를 써왔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까지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던 리두문자는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다. 인민들은 우리 말을 자유롭게 적을수 있고 배우기 쉬운 글자를 절실히 요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요구로부터 당시 봉건정부에서는 집현전의 이름있는 학자들로 하여금 우리 민족글자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훈민정음》은 지금으로부터 570여년전인 1444년에 조선봉건왕조의 4대왕 세종의 직접적인 관여밑에 집현전의 이름있는 학자들에 의하여 창제되였다.

《훈민정음》을 그대로 해석하면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소리》라는 뜻이다. 창제당시의 기본글자수는 자음 17자, 모음 11자 모두 28자였다.

《훈민정음》은 가장 발전된 글자로서 여러가지 우수한 특성들을 가지고있다.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무엇보다도 발전된 류형의 글자인 자모글자라는데 있다. 세계글자류형에는 그림글자, 뜻글자, 소리글자 등이 있다. 소리글자는 소리마디글자와 자모글자로 구분된다. 그가운데서 가장 완성된 글자가 자모글자이다.

《훈민정음》은 말소리와 글자의 호상관계, 우리 말의 자음과 모음들을 깊이 조사연구한데 기초하여 만들어졌기때문에 소리마디들을 다 잘 나타내게 되여있다.

《훈민정음》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의 말소리들도 거의다 표현할수 있다. 《훈민정음》의 이러한 특성에 대하여 그 창제자들은 《천하의 소리를 다 적을수 있다.》고 하였다.

《훈민정음》의 우수성은 다음으로 글자를 만든 원리가 과학적인데 있다. 《훈민정음》은 사람의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따는 독특한 원리로 만들어졌다. 창제자들은 혀, 입술, 목구멍 등을 비롯한 사람의 발음기관이 소리를 낼 때 변화되는 모양을 본따서 기본글자를 만들었으며 이에 기초하여 파생된 글자들도 다 체계성있게 만들었다.

세계의 글자발전력사를 놓고 볼 때 우리 민족의 고유한 글자인 《훈민정음》처럼 과학적리치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글자를 찾기란 쉽지 않다.

《훈민정음》은 이외에도 누구나 배우기 헐하고 쓰는데 편리한것을 비롯하여 많은 우점을 가지고있다.

《훈민정음》에 대하여 우리 선조들은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통달할수 있고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열흘이면 다 배울수 있다.》고 말하였으며 외국의 언어학자들까지도 《만일 말과 문자로 한 민족의 문명수준을 잰다면 조선이 지구상에서 단연 일자리에 설것이다. 그 글자는 간단하고 표현능력이 강하다.》라고 평가하였다.

세계의 적지 않은 언어학자들과 정보학전문가들은 조선글자를 세계통용글자 혹은 콤퓨터의 통용글자로서 가장 리상적인것으로 인정하고있다.

일본의 한 대학교수가 《조선글은 세종대왕이 마치 콤퓨터가 나올것을 미리 알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것과 언어학계에서 제노라고 하는 유럽의 한 대학에서 《합리성과 과학성, 독창성 등을 기준으로 세계 모든 글자의 순위를 매겼을 때 조선글이 단연 첫자리에 올랐다.》고 평한것을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우리 말과 세계 어느 나라 말도 다 적을수 있고 인간의 감정정서를 방불히 표현할수 있으며 언어정보자료의 기록에도 유리한 《훈민정음》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민족의 크나큰 긍지이다.

김일성종합대학 문학대학 교원 김정미

《동의보감》열람프로그람 개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유적과 유물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들, 비물질문화유산들을 자료기지화하고 그에 대한 정보교류를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동의보감》은 16세기까지의 우리 나라 고려의학발전성과를 집대성한 책으로서 《의방류취》, 《향약집성방》과 함께 3대고려의학고전으로 전해지고있다.

이 책은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을 이어오면서 조선사람의 생활습성과 신체구조에 알맞게 창조하고 발전시킨 고려의학적 치료방법들과 처방들이 들어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다른 나라들에도 널리 알려져있다.

고려의학을 발전시키며 민족문화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빛내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의 연구집단이 《동의보감》열람프로그람《유산1.0》을 개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고려고전의학연구실 실장 최혁, 연구사 임철송, 외국어3강좌 교원 왕현욱, 고려의학부 학생들인 한충혁, 박철혁, 리명성동무들은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영구보존하면서도 과학연구사업과 림상활동에 적극 리용할수 있게 《동의보감》열람프로그람《유산1.0》을 개발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수년간 연구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왔다.

이들이 개발한 《동의보감》열람프로그람 《유산1.0》에는 근 100만자에 달하는 원문한자들과 5권의 번역문들이 모두 전자문서로 입력되여있으며 3 000여개의 고려의학용어, 1 000여종의 고려약자료, 1만자의 한자사전으로 자료기지가 구축되여있다.

또한 《동의보감》의 영구보존을 위해 수천페지나 되는 원전이 화상화일로 보관되여있고 이에 기초하여 3만 5천여개의 원문단락과 번역문사이의 1:1대응관계를 실현함으로써 학술체계에 따르는 분류, 검색 및 통계분석 등을 원만히 할수 있게 하였다.

《동의보감》열람프로그람 《유산1.0》이 개발됨으로써 고려의학연구사업의 과학성과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는 또 하나의 담보가 마련되고 현대의학발전추세에 맞게 앞선 진단, 치료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신의학과 고려의학을 밀접히 결합시킬데 대한 당정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할수 있게 되였다.

또한 고려의학적치료원리들과 방법들에 대한 연구사업과 그것을 림상실천에 적극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할수 있는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만리마선구자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이룩된 이 자랑찬 성과는 민족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빛내이며 나라의 고려의학을 적극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핵위협장본인들의 정체는 가리울수 없다

선군조선의 련속적인 공격전에 질겁한 미국이 반공화국핵소동에 더욱 광란적으로 매여달리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우리의 정정당당한 자위적권리행사인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에 대해 《용인할수 없는 도발행위》라느니 뭐니 하고 중상모독하면서 반공화국제재와 군사적압박공세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얼마전 그 무슨 《군사적대응》에 대해 떠벌이면서 우리를 겨냥한 련합탄도미싸일무력시위라는것을 벌린 미제호전광들은 《B-1B》핵전략폭격기들의 조선반도출격회수를 늘이는 한편 핵잠수함들의 화력을 증강하는 등으로 정세를 핵전쟁발발의 문어구에로 바싹 몰아가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코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미국의 범죄적책동이 얼마나 무분별한 단계에로 치닫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공갈책동은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전인 1957년 7월 15일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것을 공식 선포한데 이어 남조선에 방대한 핵무기들을 끌어들이였으며 그곳을 전초기지로 하여 대조선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피를 물고 날뛰였다.

미제의 포악무도한 북침핵전쟁도발책동과 그에 추종하여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압살야망을 실현해보려고 미쳐날뛰어온 괴뢰통치배들의 매국매족적망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항시적인 전쟁위협이 조성되였으며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은 엄중히 위협당하였다. 력사는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화약고로 전변시키고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여온 미국의 호전적정체를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핵무장화책동은 미국의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북침야망의 산물이였다.

지난 조선전쟁에서 대참패를 당한 미제는 《조선전쟁때 원자탄을 사용하지 못한것이 한》이라고 떠벌이면서 북침핵전쟁도발을 정책화하고 남조선에 핵전쟁장비를 체계적으로 반입, 배비하였다. 미제는 1957년 10월 중순 일본에 있던 미기갑사단을 남조선에 끌어들여 미24사단과 통합하고 원자사단으로 개편하는것으로 핵무장화의 막을 올렸다. 미국은 1958년 1월 전술핵미싸일 《오네스트죤》을 남조선에 배치하였다고 공식발표한데 이어 280mm원자포를 공개하였으며 남조선강점 미공군에 핵탄두를 탑재한 《마타돌》미싸일을 배비하였다. 뿐만아니라 《서전트》를 비롯한 각종 핵탄두, 《랜스》미싸일 등 악명높은 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의 곳곳에 촘촘히 배치하였으며 지어 중성자탄까지 끌어들이였다. 미국이 남조선에 반입한 핵무기는 1970년대에 이미 1 000개를 넘어섰고 1980년대 중엽에는 1 720여개에 달하였다. 이로써 남조선은 하나의 거대한 핵무기전시장으로 화하였으며 핵무기배비밀도에 있어서 세계최대로 락인되였다.

미국은 남조선에 숱한 핵무기를 끌어들이였을뿐아니라 그것을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실지 사용할 기도를 드러내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였다. 미국이 1968년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과 1969년의 《EC-121》대형간첩비행기사건당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사용을 검토, 계획하였고 1976년 판문점사건이 일어났을 때에는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폭격기편대를 비무장지대 가까이까지 출격시키면서 핵공갈을 감행하였다는것은 결코 비밀이 아니다.

력사적사실들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핵전쟁도발책동이 얼마나 무모하고 악랄하게 감행되여왔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제의 극악무도한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위업을 가로막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침략성과 포악성에 있어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트럼프행정부가 들고나온 그 무슨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대조선정책은 본질에 있어서 힘에 의한 위협, 고강도의 군사적압박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대조선침략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날강도적인 침략정책이다. 그에 따라 미국은 핵항공모함타격단을 비롯한 방대한 핵전략자산들과 특수전병력까지 투입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을 사상 최대규모에서 광란적으로 감행한데 이어 조선반도주변수역에 증강된 핵항공모함타격단을 항시적으로 배비해놓고 남조선, 일본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을 내몰아 대조선포위환을 바싹 조이고있다.

대미굴종과 외세의존에 환장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핵문제해결》을 운운하며 미국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공공연히 편승해나서고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제재와 대화의 병행》이니, 《확장억제력에 기초한 압박강화》니 하는 망발을 줴치면서 외세와 야합하여 우리와 군사적으로 맞설 자세를 날로 로골화하고있다. 외세의 핵위협에 대처한 동족의 자위적핵억제력에 대해 《위협》이니, 《도발》이니 하고 모독하면서 핵전쟁괴물인 《싸드》의 남조선배비를 계속 추진할 기도도 서슴없이 드러내놓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운명수호를 위한 동족의 핵억제력강화조치를 미친듯이 걸고들며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데 대해 온 겨레는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광란적인 북침핵전쟁도발소동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에는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무겁게 떠돌고있으며 북남관계는 의연히 파국의 수렁에서 헤여나지 못하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조선반도핵문제를 빚어내고 그 해결의 길을 체계적으로 가로막아온 장본인은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이라는것을 명백히 폭로해주고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북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해 떠들며 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하려고 꾀하고있지만 자루속의 송곳은 절대로 감출수 없다.

오늘의 사태는 우리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져온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현명한 선택이였는가를 뚜렷이 립증해주고있다.

미국의 핵위협이 횡포해질수록 우리는 자위적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며 무적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세기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을 최후승리로 결속하고야말것이다.

은정철

파멸을 부르는 부질없는 객기

우리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의 뢰성에 놀란 괴뢰호전광들이 분별없이 헤덤비고있다. 얼마전 괴뢰해병대는 포항일대에서 미제침략군 해병대와 함께 련합작전수행능력향상을 위한 훈련을 미친듯이 감행하였다. 조선동해에서는 그 누구의 《해상도발에 대비》한다는 간판을 내건 해, 공군합동유도탄실탄사격훈련이 광란적으로 벌어졌다. 한편 괴뢰호전광들은 괌도에 둥지를 틀고있는 미제침략군의 《B-1B》핵전략폭격기편대를 또다시 조선반도상공에 끌어들여 우리의 핵심시설을 정밀폭격하는 합동타격훈련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괴뢰들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이라는 구실을 내대면서 미국상전과 공모결탁하여 모험적인 북침선제타격기도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발광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자기의 존엄과 제도,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정당한 자위적국방력강화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평화에 대한 도발》이니 하고 악랄하게 걸고들고있는것이야말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내외호전광들이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만을 엿보고있는 조건에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운명,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정의의 핵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는것은 지극히 정당한 자위권행사로서 그에 대해서는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과 선제공격능력을 계속 강화해나가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

괴뢰들이 우리의 이 억척같은 불변의 의지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미국과 련합훈련을 한다 어쩐다 하고 기뿜이 나서 날뛰고 지어 《경고메쎄지》니 뭐니 하며 설쳐대는 꼴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주체의 핵강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보유국앞에서 어디라고 감히 주먹자랑질인가. 우리는 적들의 그런 군사적객기를 범무서운줄 모르는 하루강아지의 망동으로밖에 여기지 않는다.

지금 남조선당국자들은 《평화》니 뭐니 하면서 마치 저들이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너스레를 떨고있다. 하지만 속에 칼을 품고 외워대는 그런 서푼짜리 《평화》타령을 곧이들을 사람은 없다.

괴뢰호전광들이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겨냥한 각종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들을 매일같이 감행하고있는것은 남조선당국자가 추구하는 속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비극은 괴뢰들이 저들의 호전적망동이 스스로 자멸의 함정을 파는 어리석은짓이라는것을 모르고있다는데 있다.

우리가 적대세력의 사상 류례없는 제재압살소동을 짓부시며 국가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련이어 이룩하고있는 눈부신 성과들은 빈말을 하지 않는 선군조선의 무적필승의 기상에 대한 힘있는 시위이다. 지금 괴뢰호전광들이 미국상전을 믿고 우리를 어째보려고 날뛰고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우둔한짓은 없다. 괴뢰들은 저들이 그처럼 믿고 의지하는 미국이 저들의 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가 모조리 우리의 타격권안에 들어있는것으로 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떨고있는 현실을 똑똑히 보아야 한다.

우리를 건드리는자들은 가까이에 있건, 대양건너에 있건 무자비한 섬멸적타격을 절대로 면치 못한다. 날강도 미제와 그에 추종하는 매국역적들은 오직 힘으로 다스리고 힘으로 버릇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날로 악랄해지는 미국과 그 주구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남조선은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미본토를 멸적의 조준경안에 집어넣고 도발자들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는 백두산혁명강군은 일단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즉각 멸적의 불줄기를 뿜을것이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비참한 괴멸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우리의 경고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부질없는 전쟁객기를 그만 부리는것이 좋을것이다.

허영민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는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대변인담화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역적패당이 저지른 반민족적죄악의 산물이며 친일매국의 극치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의 무효를 요구하는 기운이 전례없이 고조되고있다.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비롯한 반일단체들과 녀성단체, 시민단체들은 매일과 같이 기자회견과 성명발표, 집회 등 반일, 반《정부》투쟁을 벌리면서 보수역적패당이 일본과 체결한 성노예문제《합의》의 전면무효를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후안무치한 일본반동들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치솟는 원한과 분노, 친일역적행위를 저주하는 광범한 각계층의 격렬한 항의와 규탄에 못이겨 현 남조선당국도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의 재협상을 내들지 않을수 없었다.

알려진바와 같이 박근혜패당이 집권기간 일본의 아베일당과 작당하여 조작해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라는것은 일본으로부터 아무런 사죄도 없이 몇푼의 돈을 받는 대가로 일제가 저지른 잔악무도한 성노예범죄를 덮어버리기로 밀약한 전대미문의 치욕스러운 매국문서이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세기초 왜놈들에게 국권을 통채로 섬겨바친 《을사오적》도 찜쪄먹을 천추에 용납 못할 극악한 역적행위이다.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는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에 배치되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이며 불법적인 죄악의 범죄로서 응당 전면무효화하고 단호히 폐기해버려야 할 쓰레기이다.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모욕과 헤아릴수 없는 피해를 입힌 특대형반인륜적범죄인 일본군성노예문제는 그 무슨 《재협상》이나 《외교적합의》로 해결될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박근혜적폐청산문제이기 전에 남조선사회에 뿌리박힌 사대와 굴종의 고질적이고 체질적인 악습을 뿌리채 들어내고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되찾기 위한 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일제침략자들에게 당한 정신육체적고통과 성노예피해자들의 인생파탄은 그 무엇으로써도 만회할수 없다.

꽃다운 청춘과 사랑을 일제야수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한생 가슴에 쌓이고쌓인 피맺힌 한을 풀지 못한채 친일매국노들이 살판치는 어지러운 세상을 저주하며 눈을 감은 성노예피해자들이 바란것은 결코 《보상》따위가 아니였다.

하기에 일본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행태에 격노한 온 겨레는 말치레적인 《사과》나 몇푼의 《보상》이 아니라 일제의 식민지지배와 천인공노할 만행을 반드시 천백배로 결산할것을 강력히 주장해나서고있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반동들은 《위안부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였다.》,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과는 더이상 없다.》고 뇌까리면서 과거죄악에 대한 반성은커녕 남조선인민들을 극도로 멸시하며 오늘도 여전히 식민지종주국처럼 행세하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남조선당국이 일제가 우리 녀성들을 비롯하여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만고죄악을 덮어버리고 천년숙적 일본과 《관계발전》이니, 《미래지향》이니 뭐니 하며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는 추악한 매국배족적행위에 매달리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비굴한 대일굴종정책을 추구하면서 일본의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간계에 놀아난다면 민족앞에 수치스러운 죄악만을 남기게 될것이다.

매국적이고 굴욕적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는 추호도 용납될수 없으며 온 겨레는 일본의 극악한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총결산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7월 15일
평 양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전교조의 정의로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괴뢰보수역적패당에 의하여 강제로 비법화된 남조선의 전국교직원로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쟁취투쟁이 광범한 각계층의 적극적인 호응속에 날이 갈수록 더욱 세차게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진보세력들을 탄압박해하고 사회를 파쑈화한 괴뢰보수패당을 심판하는 초불투쟁에 앞장섰던 전교조는 박근혜년을 파멸시킨 기세로 합법화쟁취를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나섰으며 7월의 폭양속에서도 《불법로조관점 즉각 철회》, 《교사로동3권보장》, 《교원로조법 개정》을 웨치며 견결히 싸우고있다.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중앙위원회는 사대매국적이며 파쑈적인 독재의 악페를 단호히 청산하고 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합법적권리를 되찾기 위해 떨쳐나선 전교조의 의로운 투쟁에 굳은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남조선 초, 중, 고등학교교직원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인 전교조는 교육의 민주화, 교육환경개선, 통일교육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괴뢰당국의 반동적교육정책을 반대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력사관과 통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줄기차게 투쟁하여왔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각성시키는데서 큰 역할을 하고있는 전교조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리명박, 박근혜보수패당은 전교조의 의로운 교육활동과 민주화운동을 방해하고 각방으로 탄압하였을뿐아니라 악명높은 《유신》파쑈독재자의 후예인 박근혜년은 끝끝내 합법적인 전교조를 《불법로조단체》로 비법화하는 망동을 부렸다.

전교조에 대한 박근혜패당의 비법화책동은 참다운 교육에 대한 극악한 교살행위이며 교육의 신성한 권리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파쑈적폭거이다.

후대들에게 정의와 진리를 가르치는 교원들을 무차별적으로 박해하고 악랄하게 탄압하는것은 민족의 장래를 어둡게 하고 사회의 진보적발전을 억제하는 극악무도한 범죄로서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신성한 교단을 파쑈화하고 미래의 주인공들을 기형적인 정신적불구로 만들것을 강요하는 반동적인 《정권》은 민심의 지탄을 면할수 없다.

파쑈독재에 광분하며 전교조를 비법화하고 온갖 불법무법의 망동을 저지르다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박근혜년의 비참한 말로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전교조의 강력한 투쟁과 사회적압력에 못이겨 《대통령》선거때에는 전교조의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들기도 하였으나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외면함으로써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전교조의 합법화실현문제는 단순히 교원로조를 되살리는데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괴뢰보수역적패당의 파쑈적통치후과를 말끔히 청산하고 초불민심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남조선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혁하여 진정한 민주의 새 봄을 안아오기 위한 심각한 정치적문제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광범한 각계층은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강력히 주장하는 전교조의 의로운 활동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고있으며 전교조의 합법화쟁취투쟁에 합세해나서고있는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한 기세로 온갖 불의와 악의 근원을 쓸어버리고 인민이 주인된 세상,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새 정치, 새 제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할것이다.

교육자의 참된 사명과 의무를 자각하고 남조선에서 사회변혁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분연히 일떠선 전교조의 정의로운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7월 15일
평 양

단평

화만 불러온 분풀이

미국언론들로부터 자주 뭇매를 맞고있는 대통령 트럼프가 어떻게 하면 분풀이를 하겠는가 하고 골머리를 앓다가 기발한 착상을 하였다. 그것은 자기가 프로레스링선수로 등장하여 얼굴에 CNN이라는 글자를 새긴 상대방을 둘러메치는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리는것이였다.

그는 그것을 즉시 실천에 옮겼다. 아마 그는 자기가 언론들을 혼쌀냈다고 속이 시원해했을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트럼프를 더 공격할수 있는 구실로 되였다.

미국 CNN방송은 성명을 통하여 《오늘은 미국대통령이 언론인에 대한 폭력을 조장한 슬픈 날》이라고 개탄하고 대통령직의 무게와는 동떨어진 어린애같은짓을 했다고 트럼프를 조롱하였다.

트럼프를 동정하는 미국인들도 많지 못하다. 그가 언론을 둘러메치는 동영상을 내돌린 후 진행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트럼프보다 CNN방송을 더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50%나 되였다.

트럼프는 일개국 대통령의 체모에 어울리지 않게 내돌린 그 동영상때문에 국내적으로 더 몰리우고 고립되는 가련한 처지에 빠져들었다. 분풀이가 오히려 화근으로 된것이다.

더 큰 비극은 트럼프의 이런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놀아나고있는것으로 하여 미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리저리 몰리우며 고립의 길을 가고있는것이다.

김수진

《조선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라고 선언》, 《대륙간탄도로케트는 미국에 보내는 〈선물〉》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구실로 미국이 국제적인 제재압박도수를 최대로 높여보려고 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7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은 미국의 거듭되는 군사적도발에 대처하여 자위적국방력강화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를 《세계적인 위협》으로 걸고드는 미국을 규탄하였다.

조선외무성 대변인은 이번에 진행한 대륙간탄도로케트개발은 년대와 세기를 이어 지속되여온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전쟁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자위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제는 조선을 보는 미국의 전략적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며 미국은 지체없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선에 대한 핵위협공갈을 끝내야 한다고 대변인은 강조하였다.

대변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천명하신바와 같이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조선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며 조선이 선택한 핵무력강화의 길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로씨야의 따쓰통신, 신문 《자브뜨라》, 인터네트잡지 《멘쉬》, 인터네트홈페지 《빠뜨리오띠 모스크바》, 수리아의 사나통신, 신문들인 《알 사우라》, 《티슈린》, 《알 와딴》, 네팔인터네트잡지 《네팔 투데이》, 일본의 교도통신, 에짚트신문 《알 미쓰리 알야움》, 베네수엘라의 VTV방송과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민주콩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들도 《조선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케트를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라고 선언》, 《대륙간탄도로케트는 미국에 보내는 〈선물〉》 등의 제목으로 우리 나라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전문 또는 요지로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화성-14〉형의 충격, 그 의미》

이란통신이 보도

이란의 일나통신이 9일 《〈화성-14〉형의 충격, 그 의미》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

통신은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뢰성이 세계를 진감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난 5월에 단행된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시험발사에 이어 또다시 련속 행성을 뒤흔든 《화성-14》형이 국제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동방의 핵강국으로서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하지 못할 조선의 실체와 전략적지위이다.

조선은 이미전에 수소탄을 보유하였으며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를 실현하였다. 남은것은 운반체였다.

핵무기를 보유한이래 조선은 미국의 핵위협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핵무력고도화를 비상히 빠른 속도로 발전시켰다.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은 최대정점고도가 1 413.6km였다. 《화성-12》형시험발사때에는 최대정점고도가 2 111.5km로서 1년도 안되는 사이에 근 700km나 높아났다.

그로부터 2개월도 채 못되여 조선은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시험발사의 단번성공으로 국가핵무력완성을 위한 최종관문을 통과하였다. 《화성-14》형은 39분간 최대정점고도 2 802km까지 상승비행하였다.

조선의 거의 모든 전략로케트들의 시험발사는 다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되였다.

《화성-14》형시험발사의 장엄한 뢰성은 조선이 미국의 그 어느 지역도 타격할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임을 증명하였다.

둘째로, 미국의 그 어떤 제재와 압력도 조선에서만은 절대로 통하지 않으며 조선의 전진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는것이다.

오바마행정부에 뒤이어 트럼프행정부는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떠들며 조선에 대한 전대미문의 압살책동에 매여달렸다.

그러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조선에 대하여 너무나 몰랐다.

조선은 그 어떤 선진국들의 원조나 방조도 없이 오직 자력자강의 힘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륙간탄도로케트를 만들었다.

그것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극단적인 제재속에서 이룩한 최상의 성과이다.

조선은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며 그 무엇도 조선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없다는것이 《화성-14》형시험발사의 충격이 주는 여운이다.

셋째로,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의 종말을 예고하는 엄숙한 선언이다.

조선의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은 미국의 《독립절》에 발사되였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수 없다.

핵무기를 휘두르며 작고 힘이 약한 나라들, 핵이 없는 나라들만 골라 제멋대로 군사적공격을 가하며 우쭐대던 미국, 세계에 피난민대란을 초래하고 도처에서 테로의 위험을 불러온 미국의 《독립절》에 조선의 전략무기가 단번성공하였다.

조선이 정의의 핵을 틀어쥐고있기에 미국은 절대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는 굳건히 수호될것이다.

정의의 핵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진리를 《화성-14》형시험발사의 뢰성이 인류에게 새겨주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목화증산노력

에짚트가 7월에 시작된 현 회계년도에 목화생산을 지난 회계년도의 2배로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산된 목화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함으로써 농민들이 목화증산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목화생산과 수출이 국내총생산의 26.4%를 차지하고있으며 로동력의 25%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있다.

민족산업보호조치

께니아정부가 10일 새로운 반투매법을 제정할것이라고 밝혔다. 새 법은 다른 나라들의 상품투매 및 보조금제로부터 국내산업과 시장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

법안이 채택되면 불공정한 무역을 하여 상품투매를 조장하는 기업체들과 개별적인 사람들에게 엄격한 법적처벌이 가해지게 된다.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가나의 앞바다에 위치한 원유 및 천연가스매장지에서 6일 생산이 시작되였다. 이 매장지에서는 2018년까지 하루 원유 및 천연가스생산량이 최고 4만 5 000bbl, 1억 7 100만㎥로 늘어날것이라 한다.

여러 나라들 협조

튜니지와 모나꼬가 5일 두 나라사이의 동반자관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4일 께니아와 잠비아는 농산물무역을 발전시킬데 관한 협조문건에 조인하였다.

국내총생산 장성

르완다에서 올해 1.4분기에 국내총생산장성률이 1.7%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분기에 비해 더 높은 장성률이라고 한다. 이 기간에 농업, 봉사업 등 분야에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5일 이 나라 전국통계국이 밝혔다.

관광업 발전

스리랑카에서 올해 상반년에 이 나라를 방문한 관광객수가 101만 400여명에 달하였다.

6월에만도 관광객수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5% 더 늘어났다고 한다. 6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세네갈에서 체육선수육성사업

국제대사령의 보고서를 배격

르완다사법상이 11일 한 연설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국제대사령의 보고서를 단호히 배격하였다.

최근 국제대사령이 르완다에서 공포분위기가 조성되여 사람들이 불안속에 살아가고있다고 비방중상하는 보고서를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무근거한것으로 락인하였다.

그는 보고서를 꾸며낸자들은 이 기회에 저들의 리속을 챙기려 하고있다고 폭로하면서 거짓정보를 류포시키는 방법으로는 르완다의 발전을 가로막을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당국의 보건정책에 항의하여 시위

미국의 워싱톤시에서 10일 당국의 보건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현 행정부가 새로운 의료보험개혁법안을 추진시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위에는 많은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그들은 부당한 법안채택을 반대하는 글들이 씌여진 구호판들을 들고 법안채택을 중지할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시위군중이 국회의사당청사안으로 돌입하자 경찰들이 80명의 시위자들을 체포해가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ㄱ-71112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